금주일언

가령 어떤 사람이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업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모시고 수미산을 백 천번 돌더라도 오히려 부모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동대신문

제1318호 2001년 (불기 2545년) 5월 7일 월요일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 http://dgupress.dongguk.ac.kr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02)2260-3491~2 FAX(02)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054)770-2057

개교기념 이사장 치사

자비는 본교 건학이념의 기초

동국정신 재발견 · 창조적 계승이 우리의 사명

오늘 우리는 동국대학교 개교 95주년의 빛나는 역사와 전통의 의미를 되새기며, 또 한번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본인은 먼저 동국대학교의 터전을 마련하신 구한말 불교계 선지식들의 숭고한 교육 구국의 정신과 미래를 내다보신 혜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교이래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의 동국대학교를 건설해온 역대 이사장과 총장, 그리고 교직원과 동문 여러분에게도 충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회고해 보면, 20세기 초, 불교계의 선각자들께서는 일제의 침략으로 국운이 쇠퇴하고 민족의 희망이 꺼져 가던 때에, 불교적 인간 교육을 통한 민족지도자 양성을 위해 명진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그 후 온갖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부처님의 크신 가피와 모교를 사랑하는 동국인의 의지로 진리의 등불을 면면히 밝혀왔으며, 숭고한 건학 정신을 자랑스럽게 펼쳐왔습니다.

친애하는 동국인 여러분 !

이제 개교 100주년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 본인은 무엇보다도 지난 백여년을 지탱해온 동국정신을 재발견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해야 할 사명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동국정신의 뿌리는 불교 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민족의 전통사상에 있다 할 것입니다. 불교 정신의 근본은 모든 존재가 서로 상의 상관 관계로 존재한다는 연기설에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와 인생의 본래 모습을 깨닫는 밝은 지혜와 모든 존재와 생명에 대한 따뜻한 자비 정신이 곧 본교의 건학 이념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개교 95주년을 맞는 우리 동국인들은, 개교 당시 불교계의 선각자들이 염원했던 교육 이념을 이 시대에 다시 펼쳐야 할 중대한 사명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한국적인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학문을 창출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대학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이 한국 불교의 정통을 잇는 긍지와 자존심으로 동국의 전통인 인문학과 한국학의 학통을 계승하면서도, 첨단의 공학과 의학 등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불교의 다양한 응용 방법을 모색하여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 인류에게 빛을 밝혀주는 위대한 대학으로 발전되기를 염원하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대한 원력으로 대학 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송석구 총장님 이하 여러 교직원들의 뜨거운 애교심과, 특히 오늘 장기 근속상을 수상하는 자랑스러운 동국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부처님의 크신 가피 아래 동국대학교와 동국인 가족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오녹원

코끼리가족 … 본교의 상징동물인 '보현보살 코끼리상'이 교내 팔정도에 자리 잡았다. 개교 95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인 코끼리상은 행동하고 실천하는 대학인이 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조승환(미술학) 교수가 지난해 9월부터 8개월에 걸쳐 제작하였다.

개교 95주년 기념 송석구 총장 인터뷰

"백척간두진일보 정신으로 동국중흥이룩"

첨단과학분야 집중 육성 … 국내 3대 사립대학 복원을 목표로

개교 1세기가 5년 앞으로 다가왔다. '동국발전'에 대한 전 구성원의 기대가 높은 가운데 이제는 본교의 첫마음인 건학이념을 되새겨보고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할 때이다. 본교 송석구(철학)총장은 지난 95년 취임한 이래 99년 연임되어 현재 두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본사에서는 송석구 총장을 만나 재임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한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 보았다.

편집자

- 개교 95주년을 맞이한 소감은.

= 드디어 개교 100주년이 5년 앞으로 다가왔다. 1958년 본교에 입학한 이후 지금까지 43년 동안 목멱언덕을 오르내린 감회가 새롭다. 그러나 교수로서는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정년퇴임을 하게 돼 무척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동국학원이 명진학교로 출발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근래 10년간 침체기로 인해 대학의 위상이 많이 떨어진 적도 있었다. 그러나 벼랑 끝에 서있는 마음으로 더 이상 동국대가 뒤쳐지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백척간두 진일보'의 정신으로 지금까지 일해온 것이 가장 뿌듯하다.

- 2006년이면 본교가 개교한 지 100주년이 된다.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 100주년 기념을 위한 준비는 10여년 전 기념사업회를 발족,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개교 100주년까지 본교의 목표는 40~50년대 초반 우리대학이 가졌던 우리나라 3대 사립대학의 위상을 복원하는 일이다.

특히 본교가 3대 사립대학에 들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수도권 지역에 의과대학종합병원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일산불교병원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문학 중심으로 성장해온 본교가 첨단과학분야 육성에도 앞장서지 않으면 대학이 발전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을 인식, 제3캠퍼스 건립을 계획하게 됐다.

한편,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수와 학생을 유치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에 정실을 배제하고 7, 8년 전부터 전 교수를 공개로 채용하고 있으며, 교육개혁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의 질적인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동국인에게 서비스하는 정신으로 정보문화관과 상록원, 90주년 기념관 건립에도 신경을 썼다. 이제 남은 임기동안 제2도서관 건립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 지난 99년에 공사를 시작해 금년초 전체적인 형체를 드러낸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 부속 일산병원의 현재 진행상황과 완공 이후 전망은.

= 현재까지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내년 3, 4월이면 완공이 가능할 것 같다. 또한 일산병원의 건립 비용은 순수 우리재원으로만 충당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일산병원이 완공되면 동국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일산병원은 동국인의 병원이다.

사업전망에 대해서는 병원 설립계획 당시부터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준비해 왔다. 고양시를 비롯한 일산 일대의 인구를 14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병원운영의 확신을 가졌다. 또한 병원의 위치가 일산 외각으로 중심지역에서 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교통은 더 편리하다.

앞으로 병원을 심장질환과 간암계통으로 특성화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 뉴욕 스토니브룩 자매대학과 심도있게 협의하고 있다.

- 본교는 개교 100주년 완공을 목표로 제3캠퍼스를 추진해 왔으나 최근 아무런 소식이 없다.

= 제3캠퍼스는 재임기간동안 토목공사라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다. 건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은 끝났지만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후임 총장이 제3캠퍼스 건립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 현재 짓고 있는 일산병원을 비롯해 한방병원 등이 그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다. 병원은 현찰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흑자가 많이 남지 않더라도 자금확보가 쉽다.

- 96년 학부제를 도입하고 지난해 모집단위 광역화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가령, 일부 학과의 전공편중현상이나 기초학문위기 등으로 학내구성원들의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데.

= 그동안 본교는 학문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개혁정책을 펴왔다. 이 과정에서 기초학문을 다루는 인문대학, 이과대학 등이 비인기학과로 전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과도기적인 문제이지 개혁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본교 교육개혁의 목표는 그동안 중심이 되어왔던 인문학을 토대로 자연계, 이공계, 정보통신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SRC, ERC 등과 정보통신계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다. 이공계, 정보통신계의 발전은 인문학도 같이 발전하는 상승효과를 일으켰다. 또한 인문학 등 기초학문을 살리기 위한 모집단위 개선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 종단은 지난해 '동국학원…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동국학원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최근 동국학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일단은 종단에서 학교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무관심'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하지 않으셨는가.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발전에 동참하기 위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 매년 중앙일보에서 주최하는 대학종합평가를 비롯해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선정 등 외부 평가결과들이 다소 부진하다고 판단되는데.

= 중앙일보 평가의 경우, 전반적인 공간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본교는 불리할 수 밖에 없다. 교수 당 학생 수, 교수 확보율, 학생 당 강의실 면적 등과 같은 정량적 평가 기준이 교육여건 지표를 높이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본교는 3년 연속 교육개혁 우수대학으로 선정됐으나 이제는 교육정책에 따라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일구어온 성과들을 내실있게 검토하고 정리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 일이 훨씬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앞으로 일산병원과 제3캠퍼스가 완공되면 전반적인 외부평가의 결과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동국의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언제나 그래왔듯이 동국의 모든 구성원들이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대동단결하여 '동국중흥의 길'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김은선 기자
ppuzic@dongguk.edu

동대신문 기획광고

발전기금 ARS 7000-119

2만2천의 꿈을 담아 등불 밝히는 대학

매년 이맘때 동악의 밤풍경은
자비의 불빛이 꺼질 줄 모릅니다.
동악인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무사평안을 기리는
마음 하나하나를 모아 불을 밝힙니다.
동악의 밤은 조용하고 잔잔하지만
등불이 하나씩 켜질 때마다,
낮보다 아름다운 색채로 빛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동악의 번영을 기리는
불이 밝혀져 있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 깊은 곳에
동악을 비추는 등불을 밝히십시오.

동대신문사

지면안내

☞ 노벨상수상자 초청 학술회의 5면

개교 95주년을 맞아 본교 양자기능 반도체 연구센터와 서울대 물성과학연구소가 공동주관하는 국제학술회의가 '합성금속 및 양자기능 반도체'를 주제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린다.

☞ 2001년 메이데이 6, 7면

지난 1일 전세계 노동자가 하나되는 노동절 행사가 올해도 열렸다. 해고당한 대우차 노동자 한 명을 1박 2일 밀착취재하여 그의 시각에서 본 노동절을 다룬다. 그리고 노동절에 볼 수 있었던 여러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 사진 기획으로 꾸몄다.

☞ 도서관 진단과 전망 2면

☞ 캐릭터 선호 설문조사 11면

도서관 진단과 전망

대학간 연계 시스템 구축 … 특성화 자료 공유

1962년 도서관이 지어진 이래로 39년. 그동안 중앙도서관은 증축과 전산화를 거듭하며 발전해 왔다. 그러나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급변하는 지금 도서관은 이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이다. 3회의 도서관 기획을 통해 현재 도서관과 신축 중앙도서관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본다.

1 본교 도서관 진단
2 타대학 도서관 사례
3 외국대학 사례로 본 전자도서관

현재 도서관은 '책 없는 도서관'으로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 점에서 대학 도서관들은 전통적 도서관에서 디지털화된 도서관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대학도서관은 디지털 환경에 걸맞는 정보운영시스템으로의 변화가 주된 경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탄생한 디지털 도서관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컴퓨터를 통해 책의 원문을 직접 볼 수 있으며 △같은 자료를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해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세계적으로 디지털 도서관의 선두주자는 미국이다. 미국 디지털 도서관의 특징은 각 대학이 연계체제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각 대학마다 특성화 분야의 이점을 살려 전문화하는 것이다. 스탠포드 대학을 비롯한 여섯 개의 대학이 연계해 구성된 DLI 컨소시엄은 미국 항공우주국과 과학재단 등의 후원을 받으며 미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디지털 도서관을 연구하고 있다. DLI 컨소시엄은 각 대학마다 다른 분야의 연구를 맡아 고속통신망을 통해 서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현재 △스탠포드 대학은 컴퓨터 △버클리 대학은 환경 △일리노이 주립대학은 과학기술잡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은 항공사진과 지진데이터 분야의 자료를 디지털로 구축하고 있다.

특히 버클리대학은 텍스트 문서 이외에도 사진자료, 위성영상, 비디오, 지도 등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키워드 하나로 접근할 수 있는 통합형 검색을 연구중에 있으며, 사진자료들은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카네기 멜론 대학은 멀티미디어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멀티미디어 도서관은 서버에 총 1천시간 이상 분량의 디지털 비디오, 음성, 이미지, 텍스트를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렇게 도서관마다 특성화된 자료를 갖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디지털 정보의 규격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대학들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Z39.50'을 정보검색 표준 프로토콜로 승인하고 있어 디지털 도서관간 상호 텍스트 데이터는 검색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IT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더블린시립대학 도서관의 경우에 열람실의 절반에 컴퓨터를 배치하고 휴식공간을 도서관 중앙에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도서관은 수많은 이용자가 무한대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공익성과 저작권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디지털 도서관이 가장 발달한 미국 역시 저작권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저작권의 경우 미국도 아직 명확한 판례 사실이 없어 도서관과 저작권자간에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고 저작물을 공개하고 있다.

미국대학의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디지털 도서관 구축을 위해서는 △특화된 정보 확보 △디지털 정보의 표준화 △타대학과의 연계 △저작권 문제해결 등이 중요하다. 지난 91년부터 전산화를 추진해온 본교 도서관은 특성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불교학과 신라 문화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본교가 추진중인 통합형 검색시스템의 완성을 위해서는 폭넓은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확보하는 한편, 특성화 분야인 불교학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디지털화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95주년 개교기념식 오늘(7일) 진행

기념식 후 보현보살 코끼리상 제막식

개교 95주년 기념식이 오늘(7일) 11시 중강당에서 열린다.

오녹원 이사장, 송석구 총장, 권노갑 총동창회장과 용곡대학과 고마자와대학을 비롯해 일본 7개 대학에서 총장 일행 13명이 행사에 함께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기념식은 △삼귀의례 △발원문 봉독 △학교연혁보고 △표창장 수여 △휘장 수여 △총장 기념사 △이사장 치사 △총동창회장 축사 △내외귀빈소개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되며 임돈희(사학) 교수를 비롯해 49명의 교직원에게 장기근속 표창과 공로상이 수여되며 연구업적 우수교원으로 선정된 △이기동(사학) △여인형(화학) △오원배(미술학) △김갑성(한의학) 교수의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권노갑 총동창회장 △이화일 조선내화 회장 △이두철 삼창기업 회장을 '자랑스런 동국인'으로 선정, 휘장 중 최고의 영예인 금장을 수여한다.

기념식을 마친 후 보현보살 코끼리상의 제막식도 치러진다. 불교에서의 코끼리는 부처님의 탄생설화에도 나오지만, 자비실천의 보현보살을 상징한다. 동국발전의 힘찬 걸음을 바라는 뜻에서 새롭게 제작된 것이다.

장기근속 표창 대상자

△20년 근속=임돈희(사학), 김한(영어영문학), 최용재(영어영문학), 이종춘(수학), 성용길(화학), 염준근(통계학), 이금석(컴퓨터·멀티미디어학), 장태무(컴퓨터·멀티미디어학), 권영식(산업공학), 한용환(국어교육), 김용기(수학교육), 곽근(국어국문학), 정내원(영어영문학), 임태평(철학), 최영조(미술학), 이계영(컴퓨터학), 함경수(컴퓨터학), 신종문(수학교육), 김길훤(한의학), 최달영(한의학) 교수

△10년 근속=전호련(불교학), 석원경(화학), 김주필(생물학), 심익섭(행정학), 이윤근(경찰행정학), 손재현(체육교육), 권은주(불교아동학), 이창종(일어일문학), 박경일(사회복지학), 장해룡(생물학), 박순흠(화학), 박상신(생화학), 우흥식(안전공학), 정지천(한의학), 강석(의학), 서무규(의학), 이규춘(의학) 교수

공로상 수상자

△공로상 1급=유광호, 오성근, 박종진, 김규환, 권영섭, 김용석, 권준호, 이순애, 최종기

△공로상 2급=박종린, 김숙우, 이세재

SRC, 양자기능반도체 국제 학술회의 개최

내일(8일)부터 노벨물리·화학상 수상자 5명 참가

'합성금속 및 양자기능반도체 국제학술회의 2001'이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 수상자 5명과 노벨 물리학상 심사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내일(8일)부터 11일까지 학술문화관에서 진행된다.

양자기능반도체연구센터(소장=강태원·물리학, 이하 SRC)와 서울대학교 물성과학연구센터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는 합성금속과 양자기능반도체에 대한 토론과 100 여편의 논문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나노기술(NT)이 국가과학기술의 중점육성분야로 지정돼 많은 연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본교에서 개최되는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최근 급부상하는 합성금속과 반도체의 초미세 크기에서 나타나는 양자효과와 응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와 관련해 SRC의 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참석자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결과를 접하고, 연구·기술의 흐름과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985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독일의 K. von Klitzing 물리학 박사가 오는 10일 중강당에서 'Basic Research on Microstructured Semiconductors'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강연은 오후 2시부터이며, 일반 학생들도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관련기사 5면

보리수

보시(布施)의 즐거움

정 성 본 (불교문화대 선학)

우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물건이나 마음을 남에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불교에서는 남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일을 보시(布施)라고 한다.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어떤 일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고 봉사한다면,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느끼지도 못했던 기쁨과 환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베풂은 자기 주위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즐거움을 나누는 선행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커다란 기쁨과 진정한 삶의 충만감을 안겨주는 의미있는 보상이 될 것이다.

아무 대가나 기대도 바라지 않고 나눔과 베푸는 일 그 자체가 좋아서 자신의 당연한 일로 삼고 봉사하고 베푸는 사람은 즐거움과 뿌듯한 삶의 환희를 보상으로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정력적인 운동이 두뇌 속의 엔돌핀을 증가시켜 육체적으로 기분 좋게 만들고, 자비와 사랑과 친절이 담긴 봉사의 행위는 정신적인 엔돌핀을 증가시켜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조건 없이 베푸는 보시는 남을 위해 뭔가를 나누어주면서 보상과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즐거운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최상의 보살행이다. 남을 위해 선행하고, 베푼다는 것은 자신을 여유있고 넉넉하게 하며, 즐겁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보시나 베푸는 것은 반드시 값진 물건이나 귀중한 것이 아닌 어떤 물건이나 마음이라도 상관없다. 보시와 친절을 베푸는 가장 큰 의미는 자신이 그러한 베풂의 행위를 실천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커다란 정신적인 만족감과 행복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친절과 봉사의 행위도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여유와 자신의 기쁨, 환희심과 만족감을 충만하게 해주는 의미있는 보상을 안겨 준다. 그 뿐만이 아니라 베풂과 친절 봉사, 자비와 사랑의 실천으로 값진 인생의 최상의 행복한 삶을 사는 보살이 된다.

보리수 필진이 다음호(1319호)부터 새롭게 바뀝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장애순 (불교대학 불교학과 교수)
▲ 정승석 (불교대학 인도철학과 교수)
▲ 김성철 (불교문화대학 불교학과 교수)
▲ 최승천 (참여불교 재가연대)
▲ 남 선 (본사동인·불교방송국)

올해 첫 임금단체협상 진행

노조 3.7%·9만원 인상요구

올해 첫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지난 3일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협상은 학교측에서 송석구 총장과 정용길 기획인사처장, 직원노조측에서 김정대 서울캠 노조위원장과 이진형 경주캠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상에서 노조는 지난해보다 임금을 3.7% 인상하고 여기에 9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학교측에 전달했다.

이밖에도 노조는 △2급부터 9급까지 각 직급별로 인원을 재조정할 것 △사무기능직 직원의 일반직 전환 △본교 의료시설에 대해 의료원 직원과 동일하게 진료비를 감면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학교측은 다음주까지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직원노조 김병호 사무국장은 "4월에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던 지난달 정기 노사협의회의 합의가 늦어진 만큼 앞으로 협상이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의대 2년 전원 시신기증

한의과대학(학장=최달영)은 지난달 27일 한의예과 2학년 전원이 본교에 사후 시신을 기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신 기증 운동은 '인간 사랑과 한의학 발전'의 일환으로 지난 96년부터 매년 진행되어 왔으며 올해 해부학 실습 수강생 102명이 동참함으로써 총 443명이 참여하게 됐다.

해부학 실습 수업의 경우 대부분 무연고 시신을 실습에 이용해 왔으며 기증된 시신이 거의 없어 수업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경주캠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시행

2003년 1월 완공예정 … 교통체증난 해소 기대

경주시 재정난으로 지난 2년간 지연되었던 대규모의 본교 진입로 확장·포장공사가 시행돼 교통체증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사는 지난 1999년 말에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거액의 공사비용 마련이 어려워 잠정적으로 시행이 보류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대교 통행 차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교통 정체 현상이 더욱 가중되자 경주시(시장=이원식)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1차 시행계획으로 교량신설 공사를 우선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출·퇴근 시간대에 본교 정문에서 성건동까지 차량 이동 소요시간을 측정한 결과 평상시(2분)보다 최고 10분까지 소요되는 등 심한 병목현상을 보였다.

경주시는 공개 입찰을 통해 보성건설주식회사(사장=이기승)를 시공업체로 선정했으며 지난 1월부터 착공을 시작해 지난 달 17일에 본격적인 시공에 들어갔다.

총 1백 3억5천8백 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공사는 본교 진입로인 경대교 옆에 길이 4백30M, 너비 10.7M의 교량 신설과 기존 교량 하부보강 공사도 함께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교량이 신설되면 지금보다 차량 소통능력이 2배로 향상돼 병목현상이 크게 줄어 들 것"이라며 "공사로 인해 일부 도로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 확장공사는 교각을 세우기 위한 기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오는 2003년 1월 2일에 준공할 계획이다.

본 사 사 령

◇ 임 수습기자
▲ 김두연 (불교대 1)
▲ 김아현 (사회과학대 1)
▲ 한보라 (사회과학대 1)
▲ 김하나 (예술대 문예창작 1)
- 이상 5월 7일자

◇ 의원면직
▲ 박지영 (이과대 화학 3)
- 이상 4월 9일자

스승의 날 기념

은사님께 감사의 편지와 선물 보내기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옛 은사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1. 행 사 명 : 은사에게 감사의 편지와 선물 보내기 (초·중·고등학교에 한함)
2. 행사내용 : 초·중·고등학교 은사님께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학교에서 마련한 소정의 선물을 동봉하여 소포로 발송해드립니다.
3. 접수기간 : 2001. 4. 26(목)~5. 10(목)
4. 접 수 처 : 본관 학생복지실(☎ 2260-3048)
5. 편지·선물 발송일 : 2001. 5. 11(금)

※ 유의사항 : 수신자 주소는 반드시 은사님의 재직 학교 주소이어야 함.

서 울 캠 학 생 처

대학원 봄학기 기획특강

●주 제 : 인간과 기술
●장 소 : 학술문화관 세미나 1실[K900]
●문 의 : 2260-8761 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myhome.naver.com/dgugra)

[1강] 기술과 정치 경제학
홍성태(상지대 교수), 5월 11일 오후 7시

[2강]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과 사회변화
임기용(멀티미디어 연구소 선임 연구원), 5월 14일 오후6시

[3강] 생명공학-게놈 프로젝트의 현실
박병상(인천 도시 생태 환경연구소 소장), 5월 18일 오후6시

[4강] 현대 생태 사상의 3가지 흐름
구승회(동국대 교수), 5월 22일 오후 5시 30분

[5강] 인간 복합 생명체의 정체성과 사회현상
이종관(성균관대 교수), 5월 23일 오후 6시

[6강] 사이보그, 의료기술의 발달
김보영(사이버 문화 연구소 연구원), 5월 25일 오후 6시

대 학 원 총 학 생 회

원 고 모 집

2001학년도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구논집 제31집 발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투고 바랍니다.

1. 논문집 명칭 : 대학원 연구논집 제31집
2. 투 고 대 상 : 본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휴학생 및 수료생
본 대학원 출신 시간강사, 본 대학원 조교
3. 원 고 매 수 : 인문·사회계 - 200자 150매 이내 (워드로 작성시 A4용지 25매 분량)
자연계 - 200자 100매 이내 (워드로 작성시 A4용지 20매 분량)
4. 제 출 부 수 : 교정용 및 심사용 3부, 디스켓 1장 (워드로 작성 要)
5. 제 출 서 : 대학원 교학부 (☎ 2260-3093~5)
6. 원고 마감일 : 2001년 8월 31일 (금요일)
7. 게 재 통 보 : 2001년 10월 심사종료 후 개별통보
8. 발행 예정일 : 2002년 1월중
9. 원고는 별첨된 투고요령에 준하여 작성해 주시고, 워드작성기로 A4용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응모하여 통과된 원고를 교정할 때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논문집에서 제외되므로 제작 계획에 따른 교정일자를 꼭 지켜 주시어 논문집 발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학 원

취업대비 직무적성검사 실시

많은 기업에서 인재의 선발·배치에 적성검사를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자기적성 파악 및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기업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적성검사를 실시하오니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검사 종류 : 每經직무종합적성검사 (MAST형)
2. 검사 일시 및 장소
○1차 : 5월 16일(수) 오후 3시 중강당
○2차 : 5월 16일(수) 오후 6시 중강당
○3차 : 5월 17일(목) 오후 3시 중강당
3. 검사 소요시간 : 90분
4. 대상 : 1, 2, 3, 4학년 전교생
5. 비용
○총 비용 6,000원, 학생 본인부담 2,000원
○나머지는 학생상담센터와 졸준위가 지원
○검사 해석 및 상담은 무료
6. 접수 기간 : 5월 9일(수) ~ 5월 15일(화)
7. 접수 방법 : 학생상담센터나 졸준위로 단체 또는 개인 접수

※ 문의(구내전화) : 학생상담실(3930, 3931), 졸업준비위원회(3613)

학생상담센터·졸업준비위원회

박영석동문, 로체 등정 14좌 완등 눈앞에

박영석 동문이 지난달 29일 로체(8,516m) 등정에 성공함에 따라 히말라야 14좌 가운데 K2(8,611m)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이번 등정에 성공한 로체는 지난 97년 등정을 시도했으나 정상 40m를 남겨두고 내려온 곳으로 그동안 등정으로 인정받아왔으나 지난 3월 로체에 재도전하여 한달만에 정상을 정복한 것이다. 오는 10일경 귀국할 예정인 박동문은 히말라야 14좌 완등 목표의 마지막 관문인 K2 정복을 위해 오는 5월말 출국할 계획이다.

야구부 전국대회 출전 오늘(7일) 연세대와 첫 경기

야구부(감독=한대화)는 오늘(7일)부터 제51회 전국 종합야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총 28개의 대학과 실업 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본교는 오늘 동대문운동장에서 연세대와 첫 경기를 갖는다.

한편, 축구부 김승기 감독이 오는 16일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대회의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으며, 정재운(법4)군과 남민호(법3)군이 대표선수로 선발됐다. 또한 10일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이상백배 한일대학선발농구대회에 농구부 최성오 감독은 코치로, 서영권(경영4)군이 대표선수로 출전한다.

생협 오늘(7일) 무료급식 잔치국수 등 1만인분 제공

생활협동조합은 개교 95주년을 맞아 오늘(7일) 무료 급식을 실시한다.

잔치국수, 꿀떡 등 총 1만인분의 식사를 △상록원 학생식당 △동국관 학생식당 △원흥관 아리수 매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무선 인터넷망 설치 마무리 오는 14일부터 이용가능

무선 랜카드가 장착된 노트북이 있으면 학내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보관리실(실장=이종옥·정보관리학)은 오는 10일까지 무선 인터넷 망 공사를 마무리해 실외를 비롯해 상록원, 도서관 등에서 오는 14일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관리실은 무선 인터넷 이용자가 늘어날 것을 고려해 노트북 공동구매 신청을 오는 11일까지 접수받는다. 제품은 펜티엄 733Mhz의 삼성 센스 노트북이며, 구매예정 가격은 2백만원이다.

교원임용시험 설명회 입사준비 절차 강연

2002년 교원임용시험 설명회가 오는 15일 오후 2시 학림관 소강당에서 열린다.

임용연구교육학 학원 구평회 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2002년에 치러질 교원임용시험의 입시준비를 설명하고, 의문사항을 풀어주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사범대 교학과의 한 관계자는 "미래의 선생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원총, 9일부터 체육대회 오늘(7일)부터 예선전

대학원 총학생회(회장=이주환·사학과 박사과정 1학기)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대운동장, 만해광장, 두리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체육대회는 △축구 △농구 △족구 △800M 이어달리기 △배드민턴 여자 단·복식, 남녀 혼합복식 △줄넘기 종목이 펼쳐진다.

예선은 지난달 30일 추첨한 대진으로 오늘(7일)부터 대회장 곳곳에서 펼쳐진다.

중도 제1열람실 재개방 장애인·교수 열람실 신설

중앙도서관(관장=조용길·불교학) 제 1열람실이 지난달 25일부터 일반학생들에게 다시 개방됐다. 이에 따라 제 1열람실에 있던 기증품은 본관 1층 소극장으로 옮겨갔다.

지난 3월 초 학교측과 총학생회는 제 1열람실 폐실과 관련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총학생회의 강력한 요구로 학교측이 기증품의 이전을 고려하기 시작, 지난달 재개방을 결정한 것이다.

현재 기존의 144개 열람석 중 128개의 열람석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16석은 장애인·교수 열람석으로 만들 예정이다.

"학내 성폭력 이젠 안심하세요"

반(反)성폭력 학칙 제정 … 성숙한 성문화 정착 기대

대학들의 반성폭력 학칙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본교도 지난달 17일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의 반성폭력 관련 학생준칙이 '학생들은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성차별에 관한 언행을 해서는 안된다'와 같이 추상적이고 적용범위가 학생들에게 한정돼 있었던 반면 이번에 확정된 규정은 성폭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사건 발생 시 구체적인 처리과정이 명시돼 있으며, 학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성폭력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으로 규정하는 등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을 방조하거나 정신적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 다른 수단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 역시 성폭력으로 인정된다.

또한 교수·학생·직원이 참여하는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성폭력 조사와 처벌 징계를 강화했다. 성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신고자가 원하는 고충 상담원과 상담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경우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조사·심의를 거쳐 가해자에게 징계를 결정한다.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도 실명 공개사과, 반성문 제출,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여학생실(실장=김영순·화학)을 처리기관으로 지정해 신고접수와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이상 실시 △교직원 중 일정 인원을 선정해 고충상담원으로 배치 △피해자가 신분노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비밀 유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양김유미(영문4) 부총여학생회장은 이번 규정에 대해 "총여학생회가 그동안 제시해 온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학내 성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여학생실의 성폭력 상담을 위한 환경이 열악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여학생실의 한 관계자는 "많은 학생들이 드나드는데 비해 장소가 협소한 여학생실은 상담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적인 상담원을 임용하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연세대의 경우 이미 지난 99년부터 전문 상담원을 배치해 상담뿐만 아니라 성폭력과 관련한 강연회 등을 열어 성폭력을 예방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성폭력 예방 및 처벌규정은 시행세칙이 마련되는대로 실질적인 적용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학내에서 성은 무조건 가리고 숨겨야 할 것으로 여겨져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해자의 눈치까지 봐야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번 규정을 계기로 그동안 덮여져 왔던 성폭력 사건이 명확히 처리되고, 이와 더불어 학내 구성원의 성숙한 성문화가 함께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혜진 기자
atom@dohgguk.edu

교수 재임용 인성평가 개선될 듯

심희기교수 사건 총장·교수회장 면담

심희기 교수 재계약 탈락에 대한 성명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인성평가 부분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심익섭 교수회장은 지난달 26일 송석구 총장을 만나 심희기 교수 사건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심희기 교수의 복직이나 명예회복을 위한 해결방안을 듣지는 못했지만,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인성평가 부분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라는 요구에 대해 학교측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와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준비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지난달 25일 총학생회(회장=김홍민·지교4)와 '동국을 사랑하는 동문교수들의 모임(이하 동사모)'은 각각 심희기 교수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에서 총학생회는 심희기 교수 심사내용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으며, 동사모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학교측에 개탄의 뜻을 전했다. 또한 교수회가 지난달 20일부터 진행한 심희기 교수 재임용 탈락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서명운동에는 전체교수의 75%가 참여했으며, 심익섭 교수회장은 오녹원 이사장과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식당 만족도 '보통'

학복위, 생협과 간담회 통해 학생의견 전달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김태광·국교4 이하 학복위)는 지난달 실시했던 '학생식당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동국관 식당과 상록원을 이용하는 학생 중 총 421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보통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자율배식대와 배식의 중단, 한정된 메뉴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1300원과 1500원짜리 음식이 함께 배식되던 개강이전에 비해 개강 이후 눈에 띄게 많아진 1500원짜리의 배식에 대해 학생들은 비슷한 선호도를 나타냈다.

지난달 18일, 학복위는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과 간담회를 가져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생협은 △비슷한 스타일의 메뉴 줄이기 △현행보다 많은 식자재 투입 △개강 이전 배식방식과 개강 이후 배식방식을 격주로 시행하겠다고 대답했다.

"정답!"… 불교대 학생회(회장=김대수·불교4)는 지난달 23일부터 4일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중앙도서관 앞에서 불교도주간 행사를 벌였다. 여러 행사 중에서 불교퀴즈를 맞춘 학생에게는 표지에 부처님 캐릭터가 그려진 노트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심익섭 교수 사교련 회장으로 선출

지난달 28일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본교 심익섭(행정학) 교수회장이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이하 사교련) 제 8대 회장에 선출됐다.

전국대학교수회의 공동회장인 심익섭 교수회장은 지난달 28일 사교련 정기총회에서 참석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앞으로 1년동안 사교련 회장을 역임하게 된다.

취임사에서 심익섭 회장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와 연대를 강화해 정부가 올바른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회전무대

동물원

ㅇ…팔정도에 등장한 코끼리떼(?)로 동악은 때아닌 동물원 분위기라는데.

학생들에게 시원함을 제공하던 분수대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코끼리 가족이 들어선 때문이라고.

코끼리 상이 분수대가 있었던 자리를 전부 차지할 만큼 크게 지어져 답답해 보이기까지 한다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분: 분수대가 사라졌다. 수: 수(水)는 이제 볼 수 없는 것인가. 대: 대단한 코끼리 상에 한숨만 는다"

도서간(?)

ㅇ…도서관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 줄서있는 바쁜 학생들을 더욱 조바심나게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데.

도서자료를 검색하도록 마련된 도서관 3층 컴퓨터에서 메일을 확인하거나 유머게시판을 보는 학생들이 자주 눈에 띈다고.

레포트를 쓰기 위해 도서관을 찾은 학생들은 태연하게 메일 확인을 하는 학생들 뒤에서 발만 동동 굴러야 하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도서관 자료검색을 도서 간 빼먹기보다 어렵게 만드는군"

고마써라

ㅇ…최근 동악 내 각 건물 화장실마다 설치된 건조기가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는데.

이유인즉, 화장실을 이용한 학생들이 손을 씻은 후 화장지를 이용해 물기를 닦는 바람에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건조기를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아서라고.

이는 화장지로 손을 닦는 것이 습관이 된 학생들이 여전히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화장실 두루마리가 니 시다바리가…?"

새(new)전화기

ㅇ…학림관 1층 로비에는 자리만 차지하는 무용지물이 방치돼 있어 학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데.

로비에 설치된 구내전화기가 고장난 지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고.

학생들이 몇 번씩 홈페이지에 문의하고 수리를 건의해도 학교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뭐달라구 뭐? 어쩌라구 어? 아, 전화기 좀 고쳐달라고~"

경향신문 신입사원 채용설명회

2001년 경향신문 신입사원 채용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가질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특히 경향신문뿐만 아니라 언론사 입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언론에 대한 이해와 입사시험 준비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1. 일 시 : 2001. 5.15(화) 16:00-18:00
2. 장 소 : 다향관 세미나실
3. 강 사 : 가. 김택근 편집국 부국장 겸 문화부장 (본교 국문 75학번)
   나. 한인섭 편집부 차장 (본교 조경 77학번)
   다. 우철훈 사진부 기자 (본교 경영 81학번)
4. 강연내용
   가. 채용일정 설명 나. 언론의 역할과 언론인의 위상
   다. 입사시험 준비요령 라. 질의 응답

※ 기타 문의사항은 홍보실(전화 3026)로 연락바랍니다.

춘 계 명 찰 순 례

1. 순례일자 : 2001. 5. 18(금) ~ 5. 19(토) 〈1박2일〉
2. 순례장소 : 충청북도 진천군 보탑사
3. 참가대상 : 전 동국인(45명) - 선착순으로 접수함.
4. 참 가 비 : 오천원 (₩5,000)
5. 접수기간 : 2001. 5. 3(목) ~ 5. 16(수)
6. 접 수 처 : 본관 3층 학생복지실 (☎ 2260-3048)
7. 출발일시 및 장소 : 2001. 5. 18(금) 오후4시30분 정각원 앞

학 생 처

취 업 특 강

재학생 및 신입생들의 장래 진로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01년도 상반기 특강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1. 주 제 : 21세기 취업환경 변화에 따른 취업 전략
2. 강 사 : (주)대학과미래 대표이사 장재성
3. 일 시 : 2001. 5. 14(월) 14:00 ~ 16:00
4. 장 소 : 본관 중강당
5. 대 상 : 재학생 및 신입생
6. 문 의 : 본관 3층 취업지원팀 (2260 - 3054/5)
7. 특강자료집 배부

학 생 처

임용고사 설명회

1. 일 시 : 2001년 5월 15일 (화) 14:00 ~
2. 장 소 : 학림관 소강당
3. 목 적 :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들의 학문적 심화 및 의욕을 고취하고 임용고사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교원임용고사 설명회를 개최함
4. 대 상 :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재학생 및 졸업생
5. 교육내용
   1) 2001년 시행 교육학 및 전공 출제경향 분석
   2) 전국 교육공무원의 현실과 전망
   3) 2002년 교원임용시험 전공 및 교육학 수험대책 및 합격전략
   4) 2002년 교원임용시험 논술 및 면접시험 대처방안
   ※ 임용시험 수험대책 및 합격전략 (참고자료 무료 배부)
6. 주 최 : 사범대학 교학과 (2260-3380) 학생처 취업지원팀 (2260-3054)

사 범 대 학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공고

1. 교육대상
   가. 기본훈련8시간 : 전역 2-7년차 예비군('94-'99년 전역자)
   나. 소집점검4시간 : 전역 1년차 예비군(2000년 전역자)
2. 교육대상 제외자
   가. 2001년도 전역자
   나. '93.12.31일 이전 전역자 (전역 8년차 이상예비군)
3. 교육일정 / 장소
   가. 소집점검 4시간 대상자(전역1년차) / 노고산훈련장(219연대)

5.17(목) 오후(13:00)	5.18(금) 오후(13:00)
불교대, 문과대, 이과대, 법과대 사과대, 경영대, 생자대, 사범대, 대학원	공과대, 정보산업대 야간강좌, 예술대

   나. 기본훈련8시간 대상자(전역2-7년차) / 노고산훈련장(219연대)》

5.21(월)	5.22(화)	5.23(수)	5.24(목)	5.25(금)
공과대 이과대	정보산업대 경영대	생명자원대 예술대 야간강좌	대학원 교직원	불교대, 문과대 법과대, 사과대 사범대, 교직원

4. 복 장 : 예비군복(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고무링, 허리띠)
5. 휴대품 : 신분증지참(주민등록증, 학생증, 면허증)
   - 분실자는 예비군연대본부에서 편성카드 복사
6. 유의사항
   가. 구파발 전철역에서 북한산방향으로 300m 지점에 셔틀버스 대기
   - 기본교육시 : 06시40분 ~ 7시20분까지 운행
   - 소집점검시 : 11시40분 ~ 12시20분까지 운행
   나. 개인자가용 운행가능(주차장 완비)
   다. 08시(오후교육자는13시이전)이후 훈련장 입소 불가(위병소 통제)
   라. 예비군복중 1가지만 미착용해도 입소불가
   마. 해당일자에 교육을 참석 못할시 예비군연대본부에 사전 신고하여 일정 조정
   ※ 예비군연대본부 연락처 : 2260-3073,4

예 비 군 연 대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논단**

인간 존엄을 근거로 개인 양심 존중해야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한 인간이 양심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실정법의 임무를 거부할 때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가 하는 대립되는 가치간 갈등의 조정과제이다. 사람이 만든 법률은 개인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철학과 인권의 문제의식이 빈곤한 관료주의 법논리로서는 그러한 범법은 당연히 징벌한다는 형식논리에 별반 의문을 느끼지 못한다. 법철학 부재에서 나오는 한국법원의 안이한 실정법해석론이 바로 그러한 자세이다.

그러나 그러한 형식논리 법해석은 현대법의 세계에선 미개하고 유치한 법인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규정을 위반하니 그 규정대로 처벌한다는 사무적인 관료의 대응자세는 이 문제에선 그렇게 간단히 먹혀들지 못하고 있다. 점차로 그러한 개인 양심에 대한 무시와 유린의 처사는 정의감에 거슬린다는 의식을 일깨우기 시작하고 있다.

다른나라 징병제

미국은 징병제를 시행하던 당시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적 처우규정을 두어 처리했다. 신앙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소수 종교종파의 신도를 병역에 대체하는 복무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감옥에 보내는 것은 권력의 내심에 대한 지나친 간섭 침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국기경례의식에서 개인 신앙으로 인한 경례를 거부하는 일탈도 징벌하지 않고 개인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한편, 다른 나라 예로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헌법은 양심적 집총거부 보장 조항을 두었다. 그 규정을 보면 우선 신앙 양심 및 종교와 세계관의 고백의 불가침성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그의 양심에 반해서 무기를 들고 하는 전쟁의 역무를 강제 당하지 아니한다"(동법 4조 3항)고 정했다. 따라서 무기를 들지 않은 역무나 대체적 복무를 부과하여 집총복무를 대신하게 했다. 1961년 법률로 대체역무로서 '시민봉사' 제도가 설치 · 시행됐다.

현재 한국의 징병제

한국의 일반법원과 군사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다. 병역소집에 불응하면 법원은 병역법위반으로 1년 6개월이나 그 이상의 실형을 선고해 감옥으로 보낸다. 병역소집으로 군대에 입대한 자가 집총군사훈련을 신앙을 이유로 해서 거부하면 1994년 개정된 군형법 44조의 항명죄를 적용하여 군사법원은 3년의 실형을 선고해 육군형무소로 보낸다.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고집하는 '여호와의 증인' 이란 종파 신도는 8만 8천여명이고 1년에 약 500명 가량이 군대에 입대한 후 집총을 거부해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고 한다.

사상은 벌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현상태에 대한 개선책을 제언하는가? 아주 기본적인 법상식이지만, 이 문제는 중요한 인간의 양심 문제이기 때문이다.

양심 신앙 등 내심의 자유는 인간 존엄 근거의 원점이다. 인간은 사리를 분별하는 이성과 선악을 가리는 양심을 따르는 주체가 됨으로써 자유로운 인격자가 된다. 그래서 일찍이 16세기의 이탈리아 철학자 좉다노 부르노는 자기 신조를 고집해 권력에 굴복하길 거절해 화형장의 불구덩이 속에서 순사했다. 근대적 자유제도는 그러한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의 피로써 이룩된 것이다.

한 상 범
법과대 법학과 교수

우리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왕을 신으로 섬기는 노예살이에서 벗어난 후에도 분단과 냉전시대의 메카시즘적 반공주의 폭정 때문에 양심 신조 및 세계관의 자유가 무엇인가 감히 생각하고 주장해보지 못한 채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다. 아직도 노예시대의 굴레를 떠메고 있다. 이 노예시대의 질곡이 세뇌시킨 신화가 권력은 내심에 대한 주재자라는 권력만능과 관료특권의 망령이다. 이미 서구의 민권투쟁에서 일찍이 17세기에 "사상은 벌할 수 없다"는 원리가 존 밀턴에 의해 주창됐다. 생각과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는 징벌을 하는 것은 권력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이고 무법이며 정의 위반이다. 그러한 처사를 자유민주주의 이름으로 변호한다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소수의 이단자나 괴짜들과도 함께 살아가는 삶의 틀을 만들 때 참으로 우리는 자유인으로 성숙하는 것이 아닌가?

서울대 교수의 '서울대 개혁론' 제기

'간판' 만능 사회 해결 출발점

지속적인 개혁의지 자체가 중요해

최근 대학 서열화를 비판하며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 개혁론' 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서 교수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다.

서울대 물리학부 장회익 교수는 "현실적으로 한국교육에서 가장 큰 관심사이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는 대학제도, 특히 오도된 서열화에 있다"며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일직선으로 나열돼 있다보니 우수한 학생들조차 불안에 떨고 과외 등 사교육에 몰입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혁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대는 학사과정 입학생을 한시적으로 뽑지 않고 그 정원만큼을 다른 국립대에 나눠 배정하며, 서울대의 교수인력과 시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여타 국립대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과정을 '위탁교육'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학부과정은 있지만 서울대 '간판' 을 지닌 졸업생은 배출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여타 협력 대학들은 우수학생을 학사 과정에 입학시킬 수 있고 배출하는 책임을 지게 돼 교육정상화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일의 실현을 위해 "국가는 국민총생산(GNP)의 1%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교육정상화특별법' 을 제정, 국민이 안심하고 학생을 보낼 수 있는 신뢰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장 교수의 '국립대 협력 및 개방화 방안' 에 대해 서울대교수협의회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생각이며 오히려 대학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다.

"대학 교육의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장교수의 개혁안은 실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서울대 황수익 사회대 학장도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정부도 어차피 대학원 중심대학인 서울대의 학부 정원을 절반으로 줄여나갈 계획이어서 이번 논란의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까지 서울대 개혁론으로 △학부과정 폐지 및 대학원 대학으로 전환 △국가가 보호 육성해야 할 기초 학문에 관한 학부과정만 존속 △서울대 폐지론 △연합국립대론 등이 제기된 적이 있다.

일부 교수들은 '학벌중시' 라는 사회 풍토가 개선되지 않는 한 서울대가 사라지더라도 '제 2의 서울대' 가 등장할 것이 분명해 서울대 개혁론은 우리의 교육현실을 개선하는 궁극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성공회대 김동춘(NGO학) 교수는 "물론 서울대를 단숨에 없애거나 개혁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 그러나 서울대의 혁신적 재편 없이는 우리사회의 학벌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벌이 곧 신분인 사회. 명문대를 나와야 사람대접 받는 기이한 문화. 이 같은 학벌만능주의의 정점에서 서울대 간판이 차지하는 위치는 결코 작은 문제일 수 없다. 지금까지의 서울대 개혁논의는 서울대의 안과 밖에서 엇갈리고 있었다. 밖에서 제기되는 논의는 입시과열과 서울대 독점을 막기 위한 '폐교론', '분산론' 이 주를 이루었고 안에서는 교육과 연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발전론' 이 주를 이루었다. 이번 개혁 논란을 계기로 서울대를 비롯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제기 · 논의해야 할 것이다.

김윤미 기자
kiza41@dongguk.edu

동국만평

임소희 takethepower@naver.com

UN 인권위원회 위원국 선출
미 탈락

사설

건학이념의 끈으로 하나되는 동국인

개교 1세기를 5년 앞두고 미래발전상에 대한 학내외의 기대가 높은 가운데 본교가 아흔 다섯 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본교는 민족의 암흑기에 불교계의 선각자들이 구국의 기치를 내걸고 각 사찰의 정재를 모아 출범시킨 민족의 대학이다. 지난 1세기의 역사속에서 본교는 이 나라의 동량이 될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면서 유수의 명문대학으로 성장했다.

한편,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물결은 우리의 대학과 사회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대학은 이에 따른 학부제의 여파로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사람들은 '어떻게 많은 돈을 벌고 잘 살 것인가' 에 대해서만 몰두한다. '돈은 왜 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학교의 건학이념인 불교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본교는 건학이념을 되살리기 위해 '보현보살 코끼리상 제작', '자비의 등 달기', '1사찰 1장학생 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러한 사업들이 대부분 일회성 보여주기 행사에 그친다는 것이다. 학내 구성원들간에 건학이념을 중심으로 서로간에 맺어질 수 있는 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학이념의 끈을 더욱 잘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학문적,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만2천의 '다름' 속에 '같음' 을 만들어 내는 보이지 않는 힘이 필요한 것이다.

해마다 이즈음이면 동악은 '부처님 오신 날' 을 축하하는 오색찬란한 연등으로 절경을 이룬다. 아무리 많아도 서로 대립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연등을 바라보며 대학과 종단 그리고 교수와 직원, 학생들이 진정으로 화합할 수 있는 '모두' 의 생일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학생회비 예산편성을 지켜보며

올해도 학생회가 학생회비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또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올해 총학생회장이 지난해 사라진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이하 학자추) 예산을 다시 총학생회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

지난해 총학 선거가 무산되고 총학생회 산하 학자추가 구성되지 못해 그 예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결국 모든 중운위 위원들은 합의를 통해 학자추 예산을 단대 학생회로 배정하기로 결정했고, 그 당시 위원이었던 현 총학생회장도 동의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그 당시 결정 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총학생회장의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그리고 총학생회로 재편성할 수 없다는 위원들의 완강한 반대가 계속되자 학자추 예산을 포기하되 각 자치기구가 공동 분담해야 한다고 돌변하는 총학생회장의 모습 역시 공인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예산편성 문제는 모든 단대와 자치기구가 합의한 후 확정되기 때문에 서로간의 이해와 타협 없이는 해결점을 찾기 힘들다. 하지만 현재 단대 학생회는 다른 학생회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모든 합의를 마치고 자치기구들의 최종적 합의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타 학생회의 이해보다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총학생회장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그 해결점을 찾는 것은 다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모든 학생회의 중심에 우뚝 서야 할 총학생회가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많은 지탄을 쏟아내고 있다.

학생회간의 이해관계는 더 깊은 골이 파여지고, 학생들의 원성은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총학생회장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겸 주간 김호성
부주간 백승석
편집국장 박상관
편집장 김은선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하이텔 ID dg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구독문의 : (02)2260-3491 · 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전화 (02)2260-3491 · 2 팩스 (02)2279-1270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 개교 95주년 기념 노벨상 수상자 초청 ■

합성금속 및 양자기능반도체 국제학술회의

21세기에 들어 국가과학기술의 중점육성분야로 지정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로 나노기술(Nano-Technology)일 것이다. 이 나노기술의 발전에 따라 대규모 직접회로(LSI) 등의 제조기술이 향상되고 컴퓨터를 비롯하여 각종 전자교환기・계측기・전송기기・가정용전자기기 등이 더욱 초소형화・고신뢰성화・고속화・저전력화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러한 나노기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합성금속과 반도체 초미세 크기에서 나타나는 양자효과 및 그 응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국제학술회의가 양자기능반도체연구센터(소장=강태원・물리학)와 서울대학교 물성과학연구소(소장=박영우・물리학) 공동 주관으로 본교에서 열린다.

본교 개교 95주년을 맞아 내일(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학술문화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미래의 정보저장과 표시의 기술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합성금속'과 '양자기능반도체'를 주제로 한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노벨상 수상자 5명과 12개국 관련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참가한다는 것에 더욱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노벨화학상 공동수상자인 앨런 히거 박사(미국), 앨런 맥다미드 박사(미국), 시라카와 히데키 박사(일본)를 비롯해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존 로버트 슈리퍼 박사(미국, 1972년 수상), 크라우스 폰 클리칭 박사(독일, 1985년 수상), 그리고 노벨 물리학상 심사위원장인 클라손 박사(스웨덴, 물리학)등이 한자리에 모여 공통의 관심사에 대하여 토론을 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가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히거・맥다미드・시라카와 히데키 박사는 고분자인 플라스틱이 금속처럼 전기가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플라스틱의 분자구조를 변형하여 전도체로 사용할 수 있는 전도성 고분자를 발명한 공로로 노벨화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이 개발한 전도성 고분자는 유기전하이동착물, C_{60}훌러렌, 탄소나노튜브 등과 함께 합성금속으로 통칭되는데 이것은 아세틸렌 분자를 중합시켜 만든 것으로, 정전기 방지 물질에 쓰이고 있으며 컴퓨터 모니터의 전자기파 차폐물질, 햇빛을 차단하는 스마트 창문, 교통 신호등 등에 이미 활용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태양전지, 소형 TV 화면 제작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세 박사는 이번 학술회의에서 △히거=반도체 폴리머의 광물성연구(Photophysics of Semiconducting Polymers) △맥다미드=유기폴리머의 도핑특성과 연구현황(A novel role for organic polymers) △시라카와 히데키=폴리아세틸렌의 발견과 전도성 폴리머시대의 도래(The discovery of polyacetylene film-the dawning of an era of conducting polymers)를 주제로 각각 연구논문을 발표한다.

노벨물리학상 심사위원장인 클라손 박사는 △고온 초전도체의 기초연구를 위한 진성 죠셉슨 접합연(Intrinsic Josephson Junctions for Basic Studies of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s)에 관해 발표하며 존 바딘(John Bardeen), 리언 N. 쿠퍼(Leon N. Cooper)와 함께 초전도성에 관한 BCS이론을 개발한 공로로 1972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슈리퍼 박사는 △자기장 $Hc1 \ll H \ll Hc2$ 아래에서 d-파 초전도체의 디하스반알펜(de Haas van Alphen) 효과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절한 조건에서 전기도체에 의해 나타나는 저항은 양자화(量子化)된다는, 즉 저항이 완만하고 연속적이기보다는 불연속적인 단계로 변화한다는 것을 발견해 1985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클리칭 박사는 △양자점에서 전자수송 측정(Transport Measurements on Quantum Dots)을 주제로 양자수송현상과 관련해 논문을 발표한다.

이 두 박사는 양자기능 반도체분야의 장을 열었는데, 양자기능 반도체는 합성금속과 더불어 미래의 정보표시 및 정보저장 기술을 한차원 진보된 기술로 높일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의 기가비트(1기가비트=영자신문 8,500쪽 분량) 수준의 기억소자 기술을 테라비트(1테라비트=1000기가비트) 수준으로 끌어 올려, 미래의 인공지능 컴퓨터 기술을 가능케 할 것으로 학계는 예측하고 있다.

또한 이번 국제학술회의를 계기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결과를 배우고, 국내의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국내 연구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방한하는 노벨상 수상자들은 학술회의 기간 중에 별도로 본교를 포함한 7개의 학교에서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가질 예정이다.

학술부
imperial@dongguk.edu

● 특 별 강 연 일 정

7일	연세대	클라손
8일	충북대	앨런 히이거
9일	서울대	클라손
10일	고등과학원	존 로버트 슈리퍼
	동국대	크라우스 폰 클리칭
	고려대	시라카와 히데키
11일	이화여대	앨런 맥다미드

초청 노벨상 수상자 프로필

John Robert Schrieffer (슈리퍼)

△국적 : 미국
△활동분야 : 물리학
△노벨물리학상(1972) : 초전도 이론의 개발
△출생 : 1931. 5. 31 미국 일리노이주(州) 오크파크
△주요저서 : 초전도이론 (Theory of Super Conductivity, 1964)
△주요경력
- 1953년 매사추세츠공과대학을 졸업
- 1957년 일리노이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 현재 미국 Florida State University 교수 겸 국립고자기장 연구소의 물리학자
- 1968년 미국 국립 과학 아카데미의 콤스톡상 수상, 미국의 스웨덴 공학자학회의 존 에릭슨 메달 수상. 미국 예술 및 과학 아카데미의 회원

1972년에 존 바딘, 리언 N. 쿠퍼와 공동으로 BCS 이론(그들 이름의 첫 글자에서 따옴)을 발전시킨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이 이론은 초전도성에 대한 최초의 성공적인 미시적 이론이었다.

초전도란 어떤 종류의 금속이나 합금을 절대영도(0 K: −273.16 ℃) 가까이까지 냉각하였을 때, 전기저항이 갑자기 소멸하여 전류가 아무런 장애 없이 흐르는 현상을 말한다. 초전도는 전기전도성이 특별히 좋은, 혹은 반대로 전기 저항이 특별히 적은 현상을 의미한다. 초전도 현상은 오랫동안 설명할 길이 없던 비밀스런 현상이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여기에 더욱 매달렸고, 1957년 마침내 바딘, 쿠퍼, 슈리퍼는 BCS이론이라는 비밀의 열쇠를 찾았다. 이후 많은 실험적 증거들이 BCS이론을 지지했고, 이제는 조셉슨소자, 자기부상열차 등 초전도 현상이 생활에 응용될 길이 열리고 있다.

Klaus von Klitzing (클리칭)

△국적 : 독일
△활동분야 : 응용물리학, 고체물리학
△노벨물리학상(1985) : 양자홀효과 발견과 전자에너지 측정 기술 개발
△출생지 : 1943. 6. 28 독일 점령하의 폴란드 슈로와
△주요경력
- 1969년 브라운슈바이크공과대학 졸업
- 1972년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학위 취득
- 뮌헨공과대학 교수 역임,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막스 플랑크 고체물리연구소 소장 역임

1980년 클리칭은 홀 효과의 변형인 일명 정수 양자 홀 효과를 발견했다. 적당한 자기장에서 홀 저항은 자기장의 세기 변화에 따라 일정하게 변한다.

그러나 클리칭은 전자의 움직임을 2차원으로 한정해 반도체 소자의 홀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강한 자기장과 절대 영도(-273.16℃)에 가까운 온도를 사용했다. 그러한 조건에서 클리칭은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홀 저항이 일정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며 불연속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물리학자들은 양자화(量子化)되었다고 표현한다. 클리칭은 이 연구로 1985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그는 홀 효과를 이용해 전기저항이 매우 정확한 단위로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자기장이 매우 강하고 온도가 매우 낮으면, 저항은 불연속적인 단계로만 변화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관찰했다.

이것이 바로 양자홀 효과의 발견이다. 1980년 클리칭이 발견한 사실의 중요성은 곧 인정되었다. 그의 실험으로 인해 다른 과학자들이 전자 구성물의 전도성질을 놀라울 만큼 정확히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Alan J. Heeger (히이거)

△국적 : 미국
△활동분야 : 화학
△노벨화학상(2000) : 전도성 폴리머의 발견 및 개발
△출생 : 1936. 1. 22 미국 아이오와주
△주요경력
- 1961년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박사학위 취득
- 1983년 응축고체물리학분야에서 올리버 E. 버클리상을 수상, 1989년 존 스코트상, 1995년 스위스 신물질과학발전상 등 다수의 상 수상
-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타바버라 분교(UCSB) 물리학부 교수(1982~), 고분자연구소 및 물리재료학부 교수(1987~)로 재직
- 1990년 유니액스(UNIAX)사를 설립, 이사장으로 재직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에 비해 월등히 적은 비용으로 전자물질의 응용영역을 혁명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재료로 평가되는 전도성 고분자는 특유의 역학적 성질과 처리과정상의 이점, 금속 또는 반도체의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아울러 지닌 새로운 물질이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1970년대 초반, 시라카와 히데키[白川英樹] 및 앨런 맥더미드(Alan MacDiarmid)로부터 플라스틱의 전도체화에 대한 공동연구 제의를 받고 이에 동참했다. 이들 공동연구자들이 발견한 반(反)이온 유도 폴리아닐린(counter-ion induced processible polyaniline) 기술은 전자파 차단과 정전기 방지에 쓰이는 전도성 고분자 융합물, 전기화학에서 쓰이는 전기크롬 창, 새로운 고분자 전지와 감광성 반도체 소자, 발광성 다이오드(LED), 트랜지스터 등의 플라스틱 전기 장치 분야에서 사용되는 반전도성 고분자 등에 응용될 수 있으며, 또한 물리학과 화학의 접점에서 새로운 개념들을 탄생시키고 있다.

Alan G. MacDiarmid (맥다미드)

△국적 : 미국
△활동분야 : 화학
△노벨화학상(2000) : 전도성 폴리머의 발견 및 개발
△출생 : 1927 뉴질랜드 매스터턴
△주요저서 : 폴리머 전기전도도의 과학과 기술(1991), 폴리아닐린을 응용한 2차도핑 개념(1994) 및 600여 편에 이르는 저술과 공동집필한 연구논문이 있으며, 20개의 특허를 소유
△주요경력
- 뉴질랜드대학교에서 졸업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위스콘신대학교(1953), 케임브리지대학교(1955)에서 박사학위 취득
- 미국화학회가 수여하는 미국화학회상 재료화학 부문(1999)을 비롯한 다수의 상 수상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플라스틱의 전도화를 위한 연구에 착수하고 있던 맥더미드는 1975년 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일본 쓰쿠바 대학의 시라카와 히데키(白川英樹)로부터 공동연구 제의를 받았다.

맥더미드는 당시 같은 대학의 물리학부에 재직하고 있던 앨런 히거(Alan Heeger)를 이 연구에 동참케 하여 플라스틱의 전도체화를 위한 공동연구에 들어갔다.

연구 결과 플라스틱에 불순물을 화학적으로 첨가하면 분자의 특성이 바뀌어 전도체로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1977년 플라스틱도 금속처럼 전기 전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합성금속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전도성 고분자(conducting polymer)를 발명했다. 이는 플라스틱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상식을 뒤엎은 혁명적 발견이었다.

이 발견은 화학의 여러 분야들 간의 상호관계, 그리고 오늘날까지 적용범위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반도체성 금속성 유기 고분자의 구조와 그 전기적 특성에 관한 전세계적인 연구를 촉발시켰다. 이 발견은 화학의 여러 분야들 간의 상호관계, 그리고 오늘날까지 적용범위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반도체성 금속성 유기 고분자의 구조와 그 전기적 특성에 관한 전세계적인 연구를 촉발시켰다.

이처럼 전도성을 띤 유기 고분자의 사용범위는 충전지, 전자기파 차단장치, 정전기 방지장치, 플라스틱 트랜지스터 등으로 날로 확대되고 있다. 현대판 연금술로 불리는 전도성 플라스틱은 금속처럼 전기가 통하면서도 가볍고, 신축적이면서 가공하기 쉬운 획기적 소재로서 응용분야는 무한하다. 전도성 고분자는 발광다이오드(LED), 태양전지, 이동전화 디스플레이, 소형 TV화면과 평면 TV 등으로 개발되었다.

Shirakawa Hideki (시라카와 히데키)

△국적 : 일본
△활동분야 : 화학
△노벨화학상(2000) : 전도성 폴리머의 발견 및 개발
△출생 : 1936 일본 도쿄
△주요경력
- 1966년 도쿄공업대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
- 2000년 현재 일본고분자학회・일본화학회・일본물리학회・전기화학협회 등의 회원 겸임.
- 1983년 일본의 고분자학회에서 수여하는 고분자학회상, 2000년 고분자과학공적상 수상

과학자들은 종종 아주 뜻밖에 위대한 과학적 발견을 하곤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시라카와 히데키의 전도성 고분자 발견을 꼽을 수 있다. 우연적이지만 위대한 이 발견은 1970년대 초 일본 도쿄공업대학교의 한 연구소에서 전도성 고분자의 일종인 폴리아세틸렌을 실험하던 중에 이루어졌다. 그의 조교가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촉매를 실수로 1천배나 더 투여하자 기대했던 폴리아세틸렌 분말이 아닌 아름다운 은빛의 엷은 막이 나타났다. 그 순간 시라카와와 히데키는 이 물질이 전도성을 띨 것이라고 직감했다. 하지만 이 발견이 그에게 훗날 노벨 화학상(2000) 공동 수상의 영예로 이어질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보통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특정 물질, 예컨대 요오드를 첨가하면 금속처럼 전도성을 띠게 된다.

이 혁명적인 발견은 컴퓨터의 백업 전지나 휴대전화 축전지, 플라스틱 전지를 만들고 노트북 컴퓨터를 시계만큼 작게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상업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인터뷰 - 강태원 국제학술회의 공동위원장을 만나

우리과학을 세계로 잇는 교두보되길

강 태 원 교수

개교 95주년을 맞아 본교와 서울대가 공동주관하는 '합성금속 및 양자기능반도체 국제학술회의'가 본교에서 열린다. 이에 학술회의를 계획하고 준비 중인 양자기능반도체연구센터 소장 강태원(물리학) 교수를 만나 이번 학술회의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 본교는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과학기술 동국'을 기치로 이공계대학을 집중 지원했다. 그 결과 지난 99년에 정부로부터 기초과학연구센터(SRC)와 공학연구센터(ERC)가 우수연구센터로 선정돼 본교 이공계 학문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다. 또한 반도체는 부가가치가 높아 전세계에서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이번 학술회의에서 본교는 양자기능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세계 석학들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과학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다.

- 이 학술회의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 합성금속의 양자수송현상 연구에 관한 권위자들이 대거 참석하기 때문이다. 물리・화학분야의 노벨상 수상자 5명과 국내외 46명의 석학들이 한가지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펼치게 된다. 또한 지난해 노벨물리학상 심사위원장인 클라손 박사를 통해 우리나라 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 노벨상 수상자를 초청하기까지의 과정은.

= 앨런 히이거박사와 시라카와 히데키 박사는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하기 바로 직전에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했다. 그 둘은 그 때 3회 학술회의에도 참석할 것을 약속한 상태였다. 그리고 본교의 개교 95주년 기념사업을 구상하던 중 국제학술회의를 빌어 노벨상 수상자 초청 학술회의를 제안했다. 이에 나머지 세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은 평소에 안면이 있던 얼굴로 학술회의 참석에 흔쾌히 승낙해 주었다.

- 우리과학 발전에 끼칠 국제학술회의의 영향은.

= 아직 국제 사회는 우리나라를 과학분야에서는 미개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학술회의와 같은 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는 세계과학계에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위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해 우리의 발전역량을 보여주고 보다 깊이 있는 과학이론을 접함으로서 우리과학의 발전에 실한 밑거름 역할을 할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개최일정 및 학술프로그램 내용

8일	14시	등록(학술문화관)
	16시	reception(그릴회관)
9일	9시30분	개회식(학술문화관)
	10시	학술강연 I
	13시30분	학술강연 II
	15시30분	coffee break
	16시	학술강연 III
	18시30분	Banquit(학술문화관)
10일	9시	학술강연 IV
	13시30분	학술강연 V
	15시30분	coffee break
	16시	학술강연 VI
11일	9시	학술강연 VII
	13시30분	학술강연 VIII
	15시30분	coffee break
	16시	학술강연 IX
	18시	폐회식

민태진 교수의 과학이야기 (3)

조선시대의 과학

조선 초기의 과학기술은 자주적 문화창조의 분위기와 국가적 노력으로 이룩되었다. 새 왕조는 권위의 상징으로 하늘의 모든 별자리를 돌에 새겨 '천상열차분야지도'라는 천문도를 만들었으며, 태종의 강력한 추진으로 계미년에 시작된 계미활자는 세종대에 와서 활판인쇄기술로 발전되었고, 그 후 갑인 활자에 이르러 조선식 청동활자 인쇄기술이 완성되었다. 또 세종대왕은 과학적 영농정책의 하나로 '농사직설'을 편찬하여 우리 농업의 지침서를 사용케 하였으며, '풍향기'(바람깃대)와 함께 발명된 '측우기'는 강우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이탈리아의 가스텔리가 발명한 측우기보다도 무려 197년이나 앞선 것이며, 세계 농업기상학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위대한 발명품의 하나이다. 또 당시 경복궁에 있던 '대간의 대'는 대규모의 새로운 천문대로서 첨단 과학기술이 결집되어 이룩된 것의 하나였다. 여기에는 북극의 고도를 측정하는 '간의', 정밀한 시간을 측정하는 '혼천시계', 그림자의 길이로 시간을 측정하는 '규표', 방위를 측정하는 '정방안', 자동물시계와 천상시계로 구성된 '자격구', 그리고 정교한 자동시보 장치인 '옥루'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천문대의 관측과 계산을 근거로 하여 세종 24년에 편찬된 '칠정산'은 중국의 천문・역법 계산의 기본원리에 이슬람의 천문・역법 이론을 도입하여 우리의 역법을 자주적으로 만든 것으로, 서울의 북극고도를 기준으로 해뜨는 시간, 해지는 시간, 밤낮의 길이, 일식, 월식 그리고 행성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시하였다.

또 세종대의 조선백자는 고려청자로부터 분청사기를 거쳐 이룩된 것으로 고려자기와는 형식과 성질이 전혀 다른 독창적인 것이었다. 청화백자는 원래 중국에서 전래된 것이지만 그 모양과 문양의 주제가 전혀 다른 우리의 조선백자인 것이다. 조선시대 그 이외의 과학으로는 군사분야에서 조선식 화포와 거북선의 등장 그리고 15세기 화약병기의 최고 기술서였던 '총통등록'의 편찬을 들 수 있다. 화포는 고려 말부터 중국의 영향으로 실용화되었지만, 세종대에 그것을 자주적으로 개량하여 조선식 화포로 만든 것이고, 화차는 동시에 많은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무기였다. 그리고 거북선은 해적 집단을 섬멸 할 수 있는 여러개의 중화기로 무장된 전함이었다. 지리학 분야에서는 '동국지도'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라는 세계지도를 꼽을 수 있다. 의약학 분야에서 세종때에 우리 동의약의 처방법을 정리한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 그리고 한・중 의학책을 집대성한 '의학대백과사전'이 편찬되었고, 선조때 '동의보감' 그리고 정조때 '방약합편'의 편찬 등으로 조선시대 의약학은 크게 발전되었다.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과학기술은 15세기 세종대에 이르러 자주성과 창의성을 지닌 우리의 과학기술로 크게 성장하여 세계적인 꽃을 피웠으며, 그 후 백년 동안 그 맥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당시 숭유사상에 근거한 사농공상의 계급제도에서 선비사상이 숭상되고, 공업과 상업을 천시하는 사상과 함께 훈구세력과 주자학의 신진세력 간의 정쟁, 이미 득세한 정치세력 간의 당파싸움 그리고 외세에 의한 전란 등의 비생산적인 혼란으로 이백 여년간 조선시대의 과학기술이 침체의 길을 걷는 동안 서양에서는 17세기경부터 실험과학과 새로운 물질관의 등장으로 현대 자연과학이 크게 발전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수동정

▲석원경 (화학)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산타페에서 열리는 'Inorganic Chemistry into the New Millenium'에 참가하여 논문 발표.

▲성용길 (화학)
=지난달 21일 한양대에서 '기능성 고분자 신소재의 합성과 물질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정용길 (정치외교학)
=지난달 3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한・독 사회과학회 정기 총회에서 제5대 회장으로 선출.

▲이영면 (경영학)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버클리대 세미나 참석.

▲이영재 (정보관리학)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미국 George Washington 대학의 위기관리연구소와 MOU체결.

노동자의 노동자를 위한 …

구조조정, 이젠 노동자가 물리친다

2001년 5월, 우리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군부 독재정권이 사라지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다. 국민을 강조하는 정부 아래 군부 독재시절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자행됐던 끔찍한 사건들은 마치 먼 옛 이야기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지난달 10일 부평에서 일어났던 대우차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 장면이 담긴 비디오를 시청한 사람들은 너나할 것 없이 지금도 20년 전 광주의 비극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경찰은 사건 이후 '구성원 대부분이 20대 초반인 의경들이 젊은 혈기를 누르지 못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했다. 경찰 주장대로 부평에서 벌어진 폭력행각이 우발적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 김대중 정권 출범 후 노동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대량 정리해고라는 '구조적 폭력'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지난 97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된 일은 국가의 부도를 뜻하는 '모라토리움'이란 용어까지 신문을 장식하게 했다. 이에 많은 노동자들은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살리고 '경제 신탁통치'처지로 전락한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임금삭감과 노동강도 강화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해왔다. 하지만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전세계에 유행처럼 불던 신자유주의 바람에 따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였다. 구조조정은 인력감축과 동일한 의미로 여겨졌고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졌다.

이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일터를 떠나야 했고 그런 구조조정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지난 2월의 대우차 1750명에 대한 정리해고였다.

구조조정으로 졸지에 실업자 신세로 전락해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된 노동자들은 저항없이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는 않았다.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들풀처럼 피어올랐다. 그들이 두른 머리띠에는 어김없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란 구호가 적혀있었다.

최근에는 계약직 장기 파업장의 전국 순회투쟁, 생명보험 손해보험 노동자들의 투쟁 등 노동운동의 방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김대중 정권 퇴진으로 모아졌다.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공장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을 하루에도 수없이 되뇌이는 해고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은 정권퇴진을 요구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노동절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자들의 축제다. 하지만 단순한 축제로 끝나는 자리라면 올해 행사가 열렸던 대학로에 그토록 많은 노동자와 학생들이 몰려들지 않았을 것이다.

집회장을 가득 메운 주변의 노동자들과 연대의식을 느끼며 그들과 함께 현실에 닥친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에 맞서 노동자로서 일할 권리를 쟁취하는 것. 이를 위해 올해 5월 1일 역시 세계 각지에서 각국의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을 세계 만방에 과시했다. 이 땅의 노동자가 진정한 노동자로서 대우를 받는 그 날까지 노동자들의 5월 1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김윤미 기자
kiza41@dongguk.edu

노동자·학생 연대한마당을 다녀와서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비정규직 보호 위한 제도 마련해야

사진/엄태규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 대회에서 노동자 문예단이 공연을 하고 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이 땅의 노동자들은 하나가 된다. 경희대에서 지난달 30일 세계 노동절 111주년을 맞아 노동자·학생 연대 한마당이 열렸다.

학교는 금새 노동절 전야제에 참가하기 위해 모여든 노동자와 학생으로 가득 찼다.

여기저기 선전물을 나눠주며 홍보하는 학생들과 농성을 벌이는 노동자들, 주변에 걸린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라', '구조조정 분쇄하라' 등의 플래카드에 다음날(1일) 있을 노동절 집회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주노동당 학생그룹은 노동절을 기념하여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과 투쟁',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NMD-TMD', '신자유주의와 저항의 세계화'라는 3가지 주제로 각각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요즘 불거지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최상림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의 강연이 눈길을 끌었다.

이번 강연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과 특히 비정규직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위원장은 "여성을 경제활동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와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저항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조를 통해 힘을 조직하고 법적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예비 노동자로서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차별대우와 고용불안 속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700 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3개월이나 6개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임시직 노동자와 시간제 아르바이트 같은 단시간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 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속한다.

IMF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침체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왔으나 최근에는 한국통신 등에서 비정규직 노조가 결성되어 본격적인 정리 해고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강연이 끝난 후 노천극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비정규직 철폐', '노동생존권 보장' 등을 외치며 노동절 집회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어쩌면 이들의 투쟁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선인지도 모른다.

엄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대우차 노조 김조현씨의 노동절 보내기

111년 전의 외침 지금도 끝나지 않아

2001년 노동절 기념식 열려 … 10년만에 시청앞 광장 점거

대우자동차 노동자 김조현(44)씨.

매년 5월 1일, 사람들은 묻는다. 1886년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라고 외치던 미국 노동자들이 흘린 피가 헛된 것으로 남아 있지는 않은가. 오늘날 노동자들의 삶은 과연 백여년 전보다 나아졌는가.

"같은 시간이지만 김우중의 20년과 내 20년은 너무나 다르다. 김우중은 수천억을 벌어들인 반면 내게 남은 것은 융자받아 겨우 마련한 20평 아파트 뿐"이라며 씁쓸한 심경을 토로하는 김조현(44)씨.

그는 83년 입사한 대우조선을 거쳐 89년부터 대우차에서 일하면서 대우라는 기업과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10년 넘게 노동조합 활동을 자기 일처럼 여기며 항상 노동운동의 한복판에 자리해 있었다. 덕분에 지난해 4월, 대우차 해외매각 반대시위를 주도한 탓으로 회사를 떠나야 했지만 말이다.

당시 그는 10개월 뒤 1750명의 대우차 노동자들이 자신과 같은 신세가 될 줄 생각이나 했을까? 같은 부서에서 일했다는 문광주(32)씨는 "입사동기 200여명 중 무려 190명이 정리해고를 당했다"고 말한다. "회사에 몸담은 지 10년, 20년이 지난 형님들에 비하면 우리처럼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라며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짓는다.

대우차 노동자들에게 전세계 노동자들을 위한 날인 5월 1일 노동절 행사는 절대 빠질 수 없는 날이었다. 노동절 전날 경희대에서 전야제 겸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대회. 율동패와 민중가수들의 공연이 진행되자 열광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던 분위기를 가라앉힌 것은 대우차 노조 폭력진압 장면을 담은 비디오 상영이었다.

살의마저 엿보이는 눈빛으로 쓰러진 노동자들을 방패로 찍어대는 전경들과 피투성이 얼굴을 감싸안으며 신음하는 노동자들. 그들의 모습이 화면에 비치자 열기로 가득했던 노천극장은 금새 숙연해졌다.

이번 사건은 대우차 노동자들로부터 '4·10사태'로 불린다. "4·10 사태 때 피를 흘렸던 100여명 중 28명은 아직도 병원 침대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신세"라고 말하는 김씨. 몇 번 보았을 장면이지만 그는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담배를 물었다.

최길영(36)씨는 "2001년 우리는 1886년 미국과 너무나 닮았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는 노동자를 무차별적으로 진압하는 당시 미국 경찰과 오늘날 한국 경찰의 모습. 다른 것이 있다면 당시 미국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발포를 했지만 한국 경찰들은 '다만' 곤봉으로 내리쳤다는 것이랄까. 그나마 노동자에게 발포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역사의 진보를 찾기에는 노천극장에 앉은 대우차 노동자들이 받은 상처는 너무 큰 것이었다.

"노동절 다리건너 우리는 공장으로 간다!"

행사 이후 근처 한국외대에서 하룻밤을 보낸 대우차 노동자들은 다음날 '제 111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대학로로 향했다. 이들뿐 아니라 전국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몰려들어 대학로는 금새 만원이 되었다. 그리고 2만여 인파 중 맨 앞자리에 대우차 노동자들이 있었다.

처음 단상에 오른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의 연설에서 '김대중 정권 퇴진'이란 말이 여러번 되풀이됐다. 그러자 김씨는 "내 나이가 44살, 4땡이라 부르지. 올해 노동절도 111주년, 1땡 아닌가? 요즘 들어 '김대중 정부도 이젠 땡'이란 소리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 노동자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거야"라며 우스갯소리를 건넸다.

이후 여러 단체 대표들의 발언이 이어졌고 대우차 노동자들이 무대 위에서 꽃병을 던지는 상징의식이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흔히 '꽃병'은 화염병의 비유적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꽃병을 던진다는 말을 듣고 화염병을 던지는 것인가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기우에 불과했다. 막걸리병에 붉은 꽃을 꽂은, 말 그대로 모형 꽃병이었다.

대학로 행사 후 대열이 광화문으로 행진하는 도중 그는 가족 얘기를 꺼냈다. 노조활동 때문에 1년에 절반 이상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김씨. "두 딸과 애기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한 구석에 항상 남아 있어" 하지만 그는 그런 만큼 대우차 노동자들의 승리를 위해 힘써야겠다며 결연한 표정으로 행진을 계속했다.

광화문 근처에 이르자 경찰이 대열의 진행을 가로막았고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잠시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졌다. 충돌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대열은 방향을 바꿔 시청 쪽으로 향했다.

잠시 후 공권력의 상징인 서울시청 앞 광장은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제 시청 앞 광장은 우리 땅이다"라고 환호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대우차 노동자들의 정리 집회가 시작됐다.

대우차 노동자들 안에서도 재담꾼으로 소문난 김씨가 집회를 정리하는 발언을 마다할 리 없었다.

"서울시청 광장이 시위 대열에 의해 완전히 뒤덮인 것은 87년 이한열 열사 장례식과 91년 강경대 사건 이후 10년 만입니다. 이 땅 노동자들의 힘을 충분히 보여준 만큼 우리 희망을 달성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합시다"

연설 내용 중 강조한 '희망'이 뭔지를 묻자 그는 자신의 조끼를 가리켰다. 조끼에는 '공장으로 돌아가자'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동악로 그들과 우리

"오늘 물대포랑 고무총이 나온다던데…"

"선배! 잡혀가면 어떻하죠?"

메이 데이 투쟁을 위해 참가한 1백 여명 남짓한 학생들 중에서도 처음 집회에 참가하는 새내기들은 걱정되고 떨리는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

"구조조정 분쇄! 투쟁! 반미! 투쟁!"

"투쟁이라니, 시대가 어느 땐데…"

거리행진을 하는 동안에도 지나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만 쳐다보는 것 같아 부끄러워 고개도 들지 못하는 새내기에게 투쟁이라는 구호 역시 너무나 낯설고 먼 단어일 뿐이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대학로에서 출발한 거리행진이 시청 앞에 이르자 어느새 치켜 뻗은 두 주먹에도 힘이 들어가 있다.

"선배! 이게 다 끝난 거예요?"

"그래. 이제 학교로 돌아갈 일만 남았지."

"에이~시시하다."

마무리 정리집회를 위해 학교로 향하던 중 새내기와 선배의 대화는 시청 앞에서 10년 만에 평화적으로 노동절 집회를 치러낸 성과를 자축하는 것치고는 왠지 어색해 보인다.

세계 노동자의 날. 그저 일을 할 수 있게만 해달라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다름 아닌 장기간 투쟁으로 몸과 마음이 초췌한 비정규직 노동자, 불편한 몸으로 시위의 선두에 선 장애인 노동자, 어린 아이를 업고 위험을 무릎 쓴 채 시위에 참가한 여성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에게 구조조정 분쇄, 신자유주의 반대, 비정규직 철폐라는 구호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이다.

시위의 '본질'이 시위 자체가 아니라 노동자의 삶에 대한 이해와 현실의 자각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만이 '그들'을 그들이 아닌 '우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손상민 기자
neo9292@dongguk.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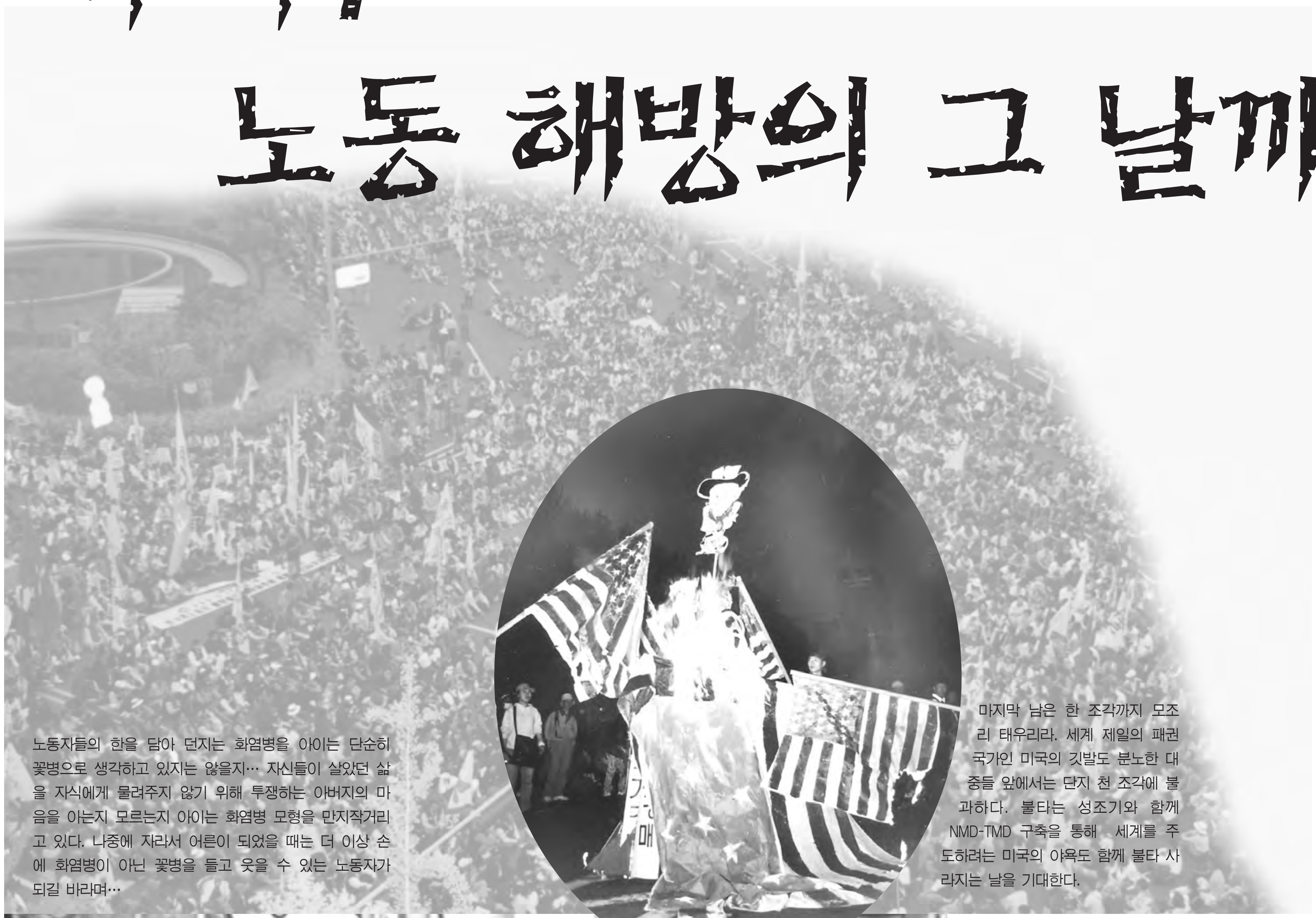
메이데이 이모저모

세계노동절 111주년을 맞아 지난 1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노동자 대회가 열렸다. 어느 때보다 평화적으로 진행된 이번 집회에서 다양한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아 사진기획으로 꾸며 보았다.

편집자

■ 사진 · 글 / 사진부

가자! 노동 해방의 그 날까지…



노동자들의 한을 담아 던지는 화염병을 아이는 단순히 꽃병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지… 자신들이 살았던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투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는 화염병 모형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나중에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손에 화염병이 아닌 꽃병을 들고 웃을 수 있는 노동자가 되길 바라며…

마지막 남은 한 조각까지 모조리 태우리라. 세계 제일의 패권국가인 미국의 깃발도 분노한 대중들 앞에서는 단지 천 조각에 불과하다. 불타는 성조기와 함께 NMD-TMD 구축을 통해 세계를 주도하려는 미국의 야욕도 함께 불타 사라지는 날을 기대한다.

사람은 누구나 장애를 지니고 있다. 그것이 신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들도 우리와 다름없는 똑같은 인간이다. 그러나 이 사회의 눈은 이들을 이상하게 바라보며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를 바꾸기 위한 그들의 투쟁은 힘겹기만 하다. 장애인이 아니라 노동자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투쟁을 여기서 멈출 순 없다.

투쟁을 위해서라면 길바닥도 내 집처럼… 그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응어리들을 힘찬 함성으로 한 번에 날려버린다. 하늘을 향한 그들의 눈은 억압되고 고통받는 노동현실이 아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그리고 있지 않을까.

메이데이 참가학생 이동철(문과대 2)군을 만나

"노동현실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

지난 1일 예년과 달라진 평화적 시위로 111주년 메이데이가 진행됐다. 이날 참가한 본교 이동철(문과대 2)군을 만나 소감을 들어보았다.

- 이번 메이데이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 지난해 소모임 선배들을 통해서 메이데이에 대해 듣고 참가했었다.

그곳에서 평소 알고 있었던 것은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노동자들이 생계조차 어려워 시위현장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회문제의 개선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참가하게 됐다.

- 지난해와 비교해서 달라진 점은.

= 올해 대우차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 진압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의 여론이 달라졌다. 전에는 시위를 부정적으로만 보던 시민들도 '정권이 너무한다' '노동자들의 시위를 이해할 수 있다'는 등의 시각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노동자와 정부 양쪽이 조심해 단 1명의 부상자 없이 평화적으로 시위가 진행됐다.

- 메이데이 집회에서 느낀 노동자들의 현실은.

= 이번에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봤는데 갈수록 그들의 상황이 힘들어지는 것 같다. 지난 겨울부터 시작한 대대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업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그들은 비정규직으로 가거나 빚을 얻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생계를 보장받고자 시위현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 앞에서 말했듯 이번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평화적 시위가 진행된 것은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그로 인해 현실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찾아주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노력해야 할 점이 많다.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내 대중성을 확보해야 하고 정부와 기업에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공격받는 신자유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IMF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 문제를 논함에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 중 하나가 '신자유주의'이다. 이 용어를 둘러싸고 정치·경제적 논의가 다방면에서 충분히 무르익기도 전에 곳곳에서 반대구호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는 30년 개발성장의 위기가 '신자유주의'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그렇다면 소위 '자본의 세계화'로도 주장되는 신자유주의가 무엇이기에, 아니 신자유주의는 왜 세상이 더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거센 공격을 받고 있는가?

일부 학자들은 20%의 부자들이 80%의 세계의 빈곤자들을 구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곤 한다. 엄격히 말하면 구제가 아니라 지배를 하고 있다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세계 경제 전체의 80%를 일명 다국적기업이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다.

사실이다. 그동안 전 세계 경제의 성장과 이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의 비율을 통계로 살펴보면 미국 대기업들을 필두로 선진국 자본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한다. 20대 80의 사회로 세계가 재편되다 보면 결국 80%의 사람들은 20%의 지배력에 궁극적으로 의존해야 하며 의존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소외되기 마련이다. 그 결과 빠른 경제성장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로 인해 국가 권력과 충돌하고 있다. 아시아의 몸살은 이런 민주주의의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초국적 자본의 세계화가 내뱉는 재채기에 심한 몸살을 앓아야 한다.

물론 민주주의는 가난을 일정하게 극복하지 못한 조건에서 물적 토대를 구축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자본 중심의 사회화가 사회의 균등 발전을 위해 전적으로 기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정치·경제·문화 이 모든 것이 이윤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자본의 논리에 지배된다면 결국 인간은 설자리가 없게 된다. 아니 건전한 비판과 상식적 잣대가 흔들리기 마련이다. 특히 사회발전 과정에서 그늘에 가리워질 수 있는 소수자들의 목소리나 인권은 파묻혀 버리기 십상이고 그들의 주장은 설 땅이 없다. 심한 경우 국가폭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일까지 벌어진다. 억압이 많은 사회는 결국 민주주의의 담보와 인권이 신음하는 불안정한 체제로 남기 마련이다.

다국적 기업의 세계지배 20대 80의 사회로 재편

더 나아가 그동안 발전시켜온 민주주의의 일정한 성과마저 흔들 수 있다. 한 예로 최근 캐나다 퀘벡에서 시민들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은 그 도시에서 볼 수 없던 유례없는 경찰들의 폭력과 충돌해야 했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대우차 해고 노동자들의 4월 10일 폭력진압 양상을 돌이켜보면 쉽게 이해된다. 대우차 문제 해결방식이 가장 옳은 선택이었는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를 떠나 소수자들의 인권과 저항권은 폭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이런 일이 진행되다 보면 민주주의의 원칙은 결국 벼랑 끝에서 흔들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자본의 세계화와 이에 저항하는 목소리 사이에서 심각한 지경의 불안정한 체제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자본의 세계화로부터 인간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고 소수자들의 인권은 더 이상 신음하지 않을 수 있는지 말이다.

차 미 경
국제민주연대 정책위원장

소나기

지하철에 부는 '발암' 바람

△무도회장은 '춤바람', 지하철에는 '발암바람'
△그래서 숨쉬기가 힘들었군~
△나는 암보험 들었지~
△담배 피면 그런 걱정 없지롱~
△석면 몸에 붙으면 사망이야
△석면이란? 화재를 방지하면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유리섬유지요
△정부가 그렇지 모… 우째…
△뭐, 한번 죽지 두 번 죽나? 사나이는 깡이다!
△숨 안쉬고 다닌지 언~ 3년
△원래 우리나라는 들쳐보면 정상적인 게 없어!
△석면? 라면? 먹으면 맛있냐?
△방독면을 휴대하자. 그러자~
△우리나라의 의학 기술 발전을 믿습니다. 암을 정복하는 그 날까지 ㅋㅋㅋ
△석면이 어때서? 맛있기만 하구만…
△지하철 타야하는 보통사람들은 에고고, 고급차 끄는 높은 사람들은 에어컨도 빵빵.
△그냥 빨랑 죽지뭐. 잼난것도 없는데…
△충무로역 표값을 공짜로 해준다면… 용서… 아침에 600원 저녁에 600원이면 히히~ 용서해주지.
△명동에서 내려서 걸어오면 되지!
△동대입구역만 간다.
△완전히 새됐쓰~ 으 싫다. 빨리 고쳐줘~
△입구에서 방독면을 빌려줘라.
△E.T. 외계인의 음모. 지구인들이여 조심!
△정말 분하고 억울하다. 매일 매일 오고가는 충무로역에 석면가루가 떠다닌다는 생각을 하니…
△석면가루 반죽돼요?
△5분동안 숨참기 연습합시다.
△먹어도 별 상관없다.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발암?
△경주엔 지하철 없어. 그럼 암 안걸리나?
△한번 박힌 석면 평생간다.
△석면으로 생긴 암은 누가 책임 질 것인가?
△황사바람도 아닌 발암바람 이제 벗어나고 싶다.
△석면가루를 마시느니 굶어죽는 편이 낫겠다.
△빠르고 편리한 만큼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진다면 차라리 도보하는 옛날이 그립다.
△지하철… 죽음의 터널인가?
△도대체 공사를 어떻게 하셨길래… 무서운 세상이야~

오솔길

김세봉 (불문대 불교3)

불편한 몸으로 사랑 베푼 주인공

"불교정신으로 이웃 돕고 살고 싶어요"

"봉사활동이라는 형식을 빌렸을 뿐 나는 그저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라며 봉사를 생활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김세봉(불문대 불교3)양. 어릴 때 앓은 소아마비 탓인지 한쪽 다리가 불편해 보였다. 이로 인해 순수한 마음으로 한 봉사가 자칫 미화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녀는 입학 전, 한 사찰에서 일하며 사회봉사와 복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 후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방학과 학기 중 틈틈이 복지관과 본교 병원에 나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병원내 법당에서 일을 돕고, 죽음을 앞둔 말기 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준비도 도와 주면서 김양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됐다고 한다. 또한 복지관에서는 정신지체아와 같은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묻자 김양은 "한 아이가 철자를 틀려가며 서툰 솜씨로 쓴 감사편지를 받고 감동했어요"라며 흐뭇한 웃음을 지었다.

장애로 인해 사람들에게 받았던 도움을 되돌려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몇 년간 꾸준히 해오던 이 일이 어느새 7백시간을 훌쩍 넘기게 됐다. 그래도 그녀는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모두 한 가족처럼 여겨주는 직원들 덕분에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편하게 지냈다며 겸손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을 염려하는 주위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고 말한다.

현재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하고 있는 김세봉양은 "이후 전공을 살려 불교를 정신적 바탕에 두고 현실적인 사회복지와 연계해 소외되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싶어요"라고 말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번쯤 주위를 돌아보며 사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삶이 더욱 기대되는 그녀. 각박한 삶 속에서도 진한 감동의 휴먼다큐멘터리를 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런 보살도 있구나' 하고 흐뭇해하는 웃음 속에서 그녀도 한 명의 보살로 남길 바래본다.

김남정 기자
hanaby37@mail.dongguk.ac.kr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제1317호 4월 16일자〉

학생들 의견 해석 필요

대학신문뿐만 아니라 기성언론에서도 독자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것이 설문조사이다. 지난호 동대신문에서는 창간기념으로 학생들이 언론개혁운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동대신문에 대한 인식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한창 이슈가 되었던 언론 개혁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고자 한 의도는 좋게 평가된다. 하지만 몇가지 그래프와 표로 두 면을 다 채우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고 본다. 또한 학생들의 의견을 해석해 특집의 의미를 살리기보다는 '학생들의 의견은 이러이러하다'라는 식의 끝맺음은 안 좋았던 것 같다.

앞으로는 보다 치밀한 계획 아래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보다 가치 있는 신문으로 남을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가현 (문과대 문예창작2)

새로운 정보 제공

지난 호 동대신문은 51주년 창간 기념호로 기념 축사와 설문조사 결과, 문화면 재조명 기사 등이 실려 특집호로 꾸며졌다. 그 중 설문조사는 다양한 형식의 그래프로 조사내용을 한눈에 쉽게 알아 볼 수 있었지만 조금은 난잡해 보였다. 하지만 언론개혁운동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일반 학생들의 개혁운동에 관한 생각을 알 수 있었고, 대중매체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텔레비전보다 인터넷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독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았던 것 같다.

김영은 (인문대 영문3)

열린글터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pc 통신 ID 하이텔 dgpress 나우누리 : 동대신문 천리안 : dgupress

전공결정제 재검토 필요

힘든 수험생 생활을 마치고 나는 모집단위 광역화 1세대로 우리 학교에 입학했다. 입학 후 얼마간은 즐거운 대학생활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지냈다. 그때는 입시 경쟁보다 더 치열한 전공결정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 말이다.

전공결정은 문과대의 경우 2학기를 마친 후 각 전공 정원의 50%를, 3학기를 마친 후 100%를 선발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과연 새로운 전공결정제도가 학생들을 위한 것일까.

내 주위에는 입학 전부터 전공을 결정하고 온 친구들이 많다. 그리고 나 또한 그렇다. 이렇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전공 결정제도가 시간낭비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전공결정제도는 학생들간의 과도한 경쟁의식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심지어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끼리 서로 필기 노트 보여주기를 꺼리기도 하는 것은 이미 서로를 친구로 생각하기 보다 경쟁자로 보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경쟁의식을 갖고 치열하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결국 모집단위 광역화는 신입생 때부터 학생들을 경쟁사회로 내모는 격이 돼버렸다.

뿐만아니라 성적순으로 전공결정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성적이 좋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제도에 따라 정해지는 공부를 해야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전공결정제도가 좀 더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한 제도로 자리를 잡아갔으면 좋겠다.

안태경 (문과대2)

교육환경 개선해 주길

매번 등록금 투쟁에서 '우리의 등록금은 과연 어디에 쓰여지는가?'라는 말을 한다. 강의실마다 좁디좁은 책상과 더러운 칠판들, 제대로 된 휴식공간 하나 없는 사실이 이 말을 대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낸 돈은 서울캠과 경주캠의 두집살림을 유지시키는데 쓰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캠퍼스는 교육환경개선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우리들도 정당한 동국대학교 학생으로서 학교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학교도 우리에게 그만큼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 이것이 학교의 의무이자 학생이 누려야할 권리인 것이다.

무엇보다 모든 건물의 강의실마다 학생 체격에 맞는 깨끗한 책상과 의자를 배치해 주고, 부족한 도서관 열람실과 도서자료를 보충해주어야 한다. 즉 학생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문화적 복지를 누리기 위해 멀티미디어실과 영상실을 늘려야 한다. 21세기는 문화적 복지도 교육환경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체육관 시설을 모든 학생들에게 개방해야 한다.

이렇듯 학생들이 학교에 바라는 점들을 가슴속에 묻어버리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학교는 항상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한번에 바꾸기란 어렵다. 하나씩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바른 교내 환경을 조성한다면 학생과 학교는 더욱 더 발전 할 것이라 생각된다.

정용혁 (관광대 관광경영학부2)

교내 환경조성에 붙여

요즘 들어서 날씨가 이상하리 만큼 더워지고 있다. 이때쯤이면 의례 사람들이 불상 앞으로 모여들어 시원하게 솟아오르는 분수대 주변으로 무리를 이루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모습과 함께 한여름의 무더위를 조금이나마 달래주었던 물줄기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처음 분수대를 없애고 그 자리를 다른 구조물로 미화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구조물이 들어설까 많은 생각을 했다. 예상대로 학교는 조금 황당한 구조물인 코끼리상을 3개나 그 자리에 설치했다. 학교의 상징인 코끼리상이 존재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지 않지만 위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측은 분수대에 사람을 빠뜨리는 행동이 위험하다는 이유와 다른 몇 가지 문제를 들면서 코끼리상으로 교체했다고 한다.

하지만 학교의 구조물을 변경하면서 왜 학생들의 의견수렴은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 아니기 때문인가? 그럼 학교의 주인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그렇지만 이런 생각도 무의미해 졌다. 코끼리상은 그 자리에 들어섰고, 분수대는 없어졌기 때문에 예전의 분수대를 생각하면 아쉬울 뿐이다.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변화한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여름의 더위를 잠시라도 잊게 해주는 시원한 물줄기가 목마른 화단에 물을 주기 위해 돌아가는 스프링클러뿐이라는 사실이 너무 아쉽다. 이제는 옷이 젖으면서도 좋았던 환경들이 기억 속에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서운할 따름이다.

안덕근 (공과대 전기공4)

나태한 생활 반성해야

대학생이 된다는 설레임으로 입학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이다. 이제 어느 정도 대학생활에 적응했고 점점 이 생활에 익숙해져 간다. 처음에는 지금까지 생활과 너무 달라 혼란스러웠지만 벌써 이 모든 것이 나의 생활이 되어버렸다.

요즘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고 대학생활도 많이 적응된 터라 나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너무 나태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시험에서조차 예전의 다짐했던 마음가짐과 노력을 보이지 않고 대충대충 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나태해져 버린 학생들의 모습이 우리가 그동안 적응해 온 대학생활이라면 정말 가슴아픈 일이다. 단지 편하고 무의미한 시간만 보내는 생활을 계속해 나간다면 4년 뒤 내 모습은 어떻게 되어있을까?

내가 처음 가졌던 꿈을 과연 실천할 수 있을까? 더도 말고 내가 입학한 3월에 가졌던 그 마음을 4년 동안 유지한다면, 아마도 졸업하는 그 날 환하게 웃으며 학교를 떠날 수 있을 것 같다.

최규미 (법정대1)

동악광장

목멱골

축하합니다

△5월 5일 창수 생일 축하한다.
△사회학과 수진아, 생일 축하해! (4일)
△정록오빠, 수현언니 축하해요. -누굴까?
△박여경, 김수호 100일 축하합니다. -다미
△영원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4.29) -춤추는 보리 '00
△신방과 환경미화 축하합니다. 깨끗한 과실 만드세요. -경영 '97 철호
△용달아, 유진이랑 100일이라며? 추카추카! -CHM4th
△기봉 兄! 생일 축하해요. -4.29
△원지야, 병철오빠랑 500일 축하해~ 이쁜 기다림 하구.
△건수와 민수의 50일을 축하합니다.
△2001.4.28 정보관리 CC 탄생!! 라덕연('00) ♥ 이성희('01) FOREVER LOVE
△해원아, 생일 정말 축하해. (5.4)
△사회과학부 장민석(5.11), 김미공(5.25) Happy birthday to you! -너희를 사랑하는 이름 모를 소녀가
△양영! 생일 축하해! -병현
△구탁이형, 정훈언니~ 5월 8일 3년째 되는 날 진심으로 추카추카!! -하나
△따소영 생일 축하해. -예술문창 '01동기들
△처녀비행 축하해여. 바람소리 13기 파이팅~!! -멋진 선배
△구희준(5.8) 배미경(5.11) 하민주(5.18) 역사교육과!! 생일입니다!!!
△고은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하고 얼른 멋진 남자친구 사귀어라.
△선일이형 1년 되신거 축하해요. 둘의 사랑 영원하시길… 재원 the nowhere
△햄동아리 27기 첫 CC 탄생! 경환 ♥ 주은 축하합니다. 좋은 연인이 되길.
△지교 '01 첫커플 탄생. 주순, 은희! 축하해. 앞으로 피해다녀. -지교 건열파
△5월 2일! 국어교육과 01학번 김옥환 생일 축하해요. -국어교육과 일동
△5월 8일, 9일~ 신숙아, 상원아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민정
△아마추어 야구부(LAE) 예선통과 추카추카!! 우승을 위하여 화이링~ -쓰투

수고하셨습니다

△동불연합학생 여러분! 초파일 행사에 수고하셨습니다.
△탈, 아리랑, 민사, 문학회분들 메이데이 때 수고하셨습니다. -표
△사범대 봄 농활대장성! 정말 수고했어요~ -선배들이
△국어교육과 백일장 준비하느라 집행부 수고했어요. -학생회장단
△메이 데이 갔다온 선연, 상지, 혜현 언니, 춘옥 언니, 홍민 오빠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지 · 교 00 천선아
△지리교육과 4학년 선배님들 교육실습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 · 교 00
△동국건축 축구하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 회장

열심히합시다

△DUBS 파이팅!! 방송제 멋지게 해보자! -정대만
△사과대 "예4모" 공부도 연애도 열심히 하자. 솔로 탈출을 위해… -前 킹카
△사과연 여러분, 창립제 열심히! 잼나게!!
△사랑하는 F.O.D.E '01학번 동기들… 우리 열심히 하자 Fighting!!!
△토토배 축구대회 불교대학 소모임 '축생축사' 우승을 위해 열심히 합시다. -이왕우 회장님 파이팅
△민속극 연구회 탈 대창주체 정주영님 열심히 해봐라!
△AD.RUSH 5월 한달도 열심히… -우진
△동국문학회 토토배 16강을 기원합니다. -'00 현
△노동자대회 무사히 치뤘습니다. 구조조정/정리해고 철회! 열심히 삽시다. -사범대 사회부장
△KUSA 토토배 축구 16강을 기원합니다. 한골만이라도…
△손짓사랑회 한상민! 군대 잘 갔다와라.
△성규야~ 수업 좀 빠지지마!!

온방골

축하합니다

△5/10일 우리 2백일이예요. 축하해줘요. 사랑해 자기~ -국사학과 은
△혜령아, 생일 축하해! 뽀뽀~ -빠
△몽련아, 생일 축하해. 5/18 -혜진, 영선, 경아, 지여
△빵, 수진, 교생실습 잘 갔다와! 예비 선생님 된 것을 축하해! -from 은탱, 악어
△미란아~ 생일 추카해^^ 예쁜 간호사가 되거라.
△5월5일이 저랑 지은이랑 200일 되는 날이거든요. 축하해 주세요. 사랑해 지은아! -승진이가
△끄네, 교생 잘 다녀와여. 모른다고 울지 말고 축하해요. -이쁘니가
△은진이언니, 생일 축하해요. -은 · 남
△혜진아, 5월 5일 생일 축하해. -영선
△현정아, 생일 축하해! -사랑하는 선배가
△은정아, 생일 축하해 -원만오빠가
△태희오빠~ 생일 추카해! (호홋^^ 오빠 생일은 5월 10일)
△연희야 생일 추카해~!!(너의 21번째 생일… 우리가 진심으로 추카해. 짝짝!)
△민아야!(가교00) 남자친구 생긴 거 추카추카~ -누구게?
△정환아! 25번째 생일 축하해 -술로 뭉친 친구. 돈
△성애야! 22번째 생일 진짜루 축하해. 그리고 요즘 행복해하는 네 모습 너무 보기 좋아. 계속 행복하길… -하^^
△자연대 미생물학 실험실. 일선언니, 영진언니 생일을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해요. -주영
△식아! 600日 추카추카!!
△고적에 새로운 커플 탄생!! 추카합니다. L선배^^& 배두나 후배^^

수고하셨습니다

△4.30-MayDay 동국대 투쟁단 "으랏차차" 동지들! 수고하셨습니다. 부산-대구 5.1절 투쟁을 경유하고 노동해방의 한길을 나갑시다! -3반 학우
△Newsweek 여러분 그 동안 시험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부장
△인문대 학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인대 연사차장

열심히합시다

△정보산업학과 Jara동아리 Copynpaste, 다들 열심히해용! (종태, 한번만 더 안나오면 짜름!)
△우리 개굴이랑 동글이랑 교생 실습 열씨미하고 와~ -바라밀
△동숙아! 인숙아! 열심히 좀 해라! ^^
△임석대동 영화제!! 열심히 준비해서 소낙비 일으킵시다!!
△중어중문 파이팅!!
△푸르체리마 여러분!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합시다. 그리구 이번 M · T 꼭 참석하시구…
△유순아! 교생실습 잘 다녀와! 화이링~ -영문 98 신해가
△동걸이가 시험친대요. 5月20日 시험 잘 쳐라. 동걸아!! 끝나구 미팅 시켜줄께!
△막강 고적21기,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친구야~ 친구사이는 미안하다는 말 안 하는기다. 친구다 아이가~ -경상도 친구
△낙호선배. 밥 사줘서 고마워.
△혜선아~!! 요즘 힘들어하는 모습 맘이 아프다. 힘내고… 최군인도 잘 지내고 있을거야. 걱정말고… 우리가 있잖아!^^ -친구가
△은실아 대학에서 너 다시 만나서 반갑고, 언제 밖에서 만나자^^ -민희
△그대와 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기를 빌어요. 이젠 힘들게 하지 않을께요. 진실로… 사랑합니다. -주영이가 그대에게 올리는 글
△너에게 왠지 새로운 사람이 올 것 같다. 친구야, 잘 됐음 좋겠다~ -너의 방짝
△은정, 경순, 수연아, 같이 있는 시간이 적어 미안하구나. 내맘은 그게 아닌데…

속 시원하게 이야기 합시다

대우자동차 노조 시위

관점1

경찰의 노동자 폭행,
결과만 보지말고
원인을 생각해보자

얼마 전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사무실로 진입하려던 노동자들과 경찰간에 충돌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했다. 노동자들을 폭행한 것은 전적으로 경찰의 잘못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과 언론에서는 일방적으로 경찰들만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 아쉽다.

만약 학생회 간부들이 학교측과 마찰을 빚어 건물 입구를 막고 있다고 해 보자. 교직원들이 간부들을 감금하고 욕설을 퍼붓고 주먹질을 가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아마 일부 학생들은 나이든 교직원들에게 감정적으로 달려들 것이다.

경찰은 분명 감정을 조절해야 한다. 하지만 몇 달간 지속되는 오랜 시위에 시달리고, 자신들 바로 앞에서 얼굴에 침을 뱉으며 "전경은 XXX같은 녀석들!"이라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듣는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당시 노동자들은 경찰 10여명과 직원 1명을 납치해 감금, 폭행하고 갖은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는 등 현장에 있던 대원들을 흥분하게 만들었다.

경찰을 폭행 없이 한쪽에 몰아만 놓았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찰과상을 입고 부상당한 이들은 자해를 했단 소리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무방비의 노동자들을 무리하게 진압한 것은 분명 잘못이다. 하지만 그 앞 뒤 과정을 모두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찰만을 매도하며 자신들은 민주투사인양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한가지 작은 바램이 있다면 알맹이는 숨긴 채 잘 포장된 겉모습만 보지 말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다.

김상헌 (사범대 국어교육4)

관점2

노동자·전경 모두 희생자
무력진압 사태는 정권에
대한 노동자의 외침이다.

대우자동차 노조원들의 시위진압 사태에 대한 학생회를 비롯한 여러 운동단체들과 노동계의 반발은 당시 진압을 했던 전경들을 향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

노동자들이 외쳤던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반발은 사태의 근본원인을 제공한 잘못된 구조조정, 정리해고와 이러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정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정권에는 작년 사회보험노조와 롯데호텔노조 폭력진압이후 계속적으로 노동자들의 시위에 강경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현 경찰의 수뇌부와 공안기관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태를 노동자 대 전경들의 문제로 보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며 올바른 관점이 아니라 생각한다.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하는 전경들도 희생자일 수 있다.

미국의 나스닥지수 폭락과 함께 2년만에 종합주가지수 500선이 무너지는가하면 달러 환율도 98년 이후 가장 높은 1300원대로 치솟고 있어 제2의 경제 위기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것이 지금의 경제 상황이다.

또한 300만을 넘은 신용불량자와 눈에 띄게 늘어나는 노점상, 보험료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불안감을 면치 못하는 서민의 가계와는 대조적으로 IMF 이전에 비해 두 배가 넘게 늘어난 외제차의 소비량을 보면 일련의 구조조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알 수 있다. 2대 8을 넘어서 1대 9로 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구조조정은 고통분담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고통을 떠넘긴 셈이다.

다시 한번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왜 그 차가운 아스팔트에 웃통을 벗고 드러누울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주진완 (사범대 국어교육4)

열린글터

서울캠 TEL 02)2260-3491~2 경주캠 TEL 054)770-2057~8
FAX 02)2279-1270 FAX 054)770-2057

◇ 특별기고 - '백두 · 한라회' 연합 체육대회를 다녀와서

탈북자와 함께한 통일기원 한마당

재미와 감동 선사한 친목 도모 자리 … 사회동지의식 느껴

지난달 22일 대운동장에서는 탈북자와 본교 북한학과를 비롯한 각종 단체가 중심이 되어 발족한 모임인 '백두 · 한라회' 연합체육대회가 있었다.

처음 마주한 사람들은 조금은 낯설어 하며 서먹함을 감추지 못했지만, 체육대회가 시작되면서 이내 가까워졌다. 대 · 내외의 1천여 탈북자를 대표한다는 자부심 속에 출범한 탈북자 친목봉사단체인 '백두 · 한라회'는 주요 언론사의 주목을 끌며 본교 북한학과와 여러 학생단체, '남북어깨동무 어린이돕기 운동본부' 등 각종 사회단체의 참여 속에 그 첫발을 내딛었다.

처음으로 탈북 작가이자 군인출신인 김성민씨가 '백두 · 한라회'라는 탈북자 친목단체를 만들기 위해 준비중이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나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더구나 북한학과와 함께 체육대회를 한다며 준비작업에 들어갔을 때도 적잖은 걱정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한낱 기우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사전준비모임을 진행하면서 대 · 내외의 관심이 증폭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느낄 수 있었다.

본사사진자료

'백두 · 한라회' 회원들이 체육대회를 통해 남 · 북의 벽을 허물고 기뻐하는 모습.

체육대회가 있던 날 운동장은 주요 언론사 취재단과 '백두 · 한라회'회원, 북한학과 학생들, '남북 어깨동무 어린이돕기' 사람들로 금방 부산해졌다. 사무간사를 맡고 있는 조윤영(국문4)씨가 '백두 · 한라회'출범 선언문을 낭독할 때 운동장은 숙연해지기까지 했다. 계속해서 최대석 북한학과 지도교수님과 회장인 김성민 씨의 소개인사가 이어졌으며 모두가 오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다.

우리는 북한식 놀이인 '통일열차달리기'를 비롯해 릴레이, 줄다리기, 축구 등을 즐겼다. 비록 특별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보다 크고 넓게 미래를 조망하면서 하루를 보냈다. '통일열차달리기'를 하기 위해 남북의 정체성을 잊은 채 어울려 서로 발을 묶은 사람들. 반환점을 향해 달리며 혹 걸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 발을 맞춰 달리는 모습은 재미와 함께 큰 감동을 선사했고, 처음의 서먹서먹함과 어색함은 서로 합심해서 줄을 당기고, 공을 주고 받는사이 자연스레 사라지고 없었다.

이 행사 취지는 우리와 함께 같은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고 친목 도모를 통해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서로에 대한 믿음은 결코 한민족이라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기에 이 행사는 단순한 통일에의 갈망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탈북자들과 그것을 받아 안으려는 사람들의 작은 만남이자 몸짓인 것이다.

이제 '백두 · 한라회'는 함께 하는 사회를 스스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출발선상에 서 있다. 체육대회 내내 웃음을 머금은 회원들을 보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것과 통일이 결코 멀지 않았음을 새삼 느꼈다.

체육대회를 통해 만난 탈북자들은 결코 먼나라의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너무나도 똑같은 한민족 한핏줄이었다.

윤천규 (사과대 북한3)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신입생 모집 (계절제)

1. 모집과정 :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1년 과정)
2. 모집인원 : 초등과정 30명, 중등과정 30명
3. 지원자격
   가. 초.중등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교육전문직 포함)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 종사자
   나.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4. 전형일정

지원서교부 및 접수처	교 부 기 간	접 수 기 간	전 형 일 시
교육대학원 교학부	2001년. 5. 7 ~ 5. 16	2001년. 5. 14 ~ 5. 16	2000. 5. 19(토) 14:00

※ 토. 일요일 및 5.8(화)은 90주년기념학술관 수위실에서 교부
※ 우편접수는 마감시간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시 전형료는 우체국발행 통상환을 발급 받아 지원서와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5.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6. 제출서류 : 각 1부
   1)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 (소정양식, 여권용 사진 3매 부착)
   2) 경력증명서 (교육청발행, 교직 총 경력 기재)
   3) 재직학교장 추천서
   ※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7. 특 전 :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수여, 기본 강의교재 무상지급
8. 기 타
   1) 전 형 료 : 30,000 (원서대 :무료)
   2) 수업기간 : 하계. 동계방학을 이용한 계절제 수업

구 분	하 계	동 계
수업기간 (예정)	2001. 7. 23(월) ~ 8. 17(금)	2002. 1. 7(월) ~ 1. 31(금)

9. 문 의 처
   1) 교육대학원 교학부 TEL: (02) 2260-3109, 3110, FAX: 2260-3111
   2) 홈페이지 : http://www.dgu.ac.kr

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재직학교장 추천서 양식은 본 대학교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공지사항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모집안내"를 선택하시면 다운로드 할 수 있음

교 육 대 학 원

하계 해외 자매대학 학술문화연수

1. 행 사 명 : 2001학년도 동국대학교와 일본 삿포로학원대학간 학생 학술문화연수
2. 연수형태

구분	연수기간	연수담당대학	연수단	비 고
참가	2001. 7. 2(월) ~ 7. 8(일) 1주	삿포로학원대학	학생 10명+인솔자	인솔자는 추후결정
주최	2001. 9. 10(월) ~ 9. 16(일) 1주 예정	본교	〃	〃

3. 주요 연수내용 (세부 연수프로그램 추후 통보)
   가. 사용언어를 영어 위주로 하는 학생 교류
   나. 상대국(대학) 체류기간 중의 일정기간 홈스테이(Homestay)를 통한 실생활 체험
   다. 세미나, 토론수업 등의 정규수업 참가
   라. 양국 명소 관람 등의 문화탐방
4. 연수경비 :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생 1인당 ₩300,000 학교지원

구 분	금 액	비 고
왕복항공료	₩454,800	그룹요금
숙 박 비	₩252,950	호텔 3박
기타 개인경비	₩200,000	식비 포함
소 계	₩907,750	
	- ₩300,000	※ 연수생 1인당 학교 지원액
실질부담액	₩607,750	

※ 상기 경비는 2000년도 기준이며, 환율 및 현지사정으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5. 신청자격
   가. 현재 서울캠퍼스 학부과정 3학기~5학기 재학생으로 평균평점이 3.0 이상이고
   나. 영어회화가 가능하며
   다. 본교측 주최시(9. 10(월) ~ 9. 16(일)), Homestay 제공 등 본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자
6. 신청서류
   가. 해외 자매대학 학술문화연수 지원서(소정양식) 1부
   나. 재학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7. 모집일정
   가. 원서 교부 · 접수 : 5. 10(목)까지 국제교류실에서 접수
   나. 면접 : 2001. 5. 11(금) 14:00~ , 국제교류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실(본관 2층, ☎ 2260-3876)로 문의 바랍니다.

연 구 처

하계 해외 자매대학 중국어연수

1. 연수기간 : 2001. 7. 2(월) ~ 8. 12(일) (6주)【출국 : 7. 2(월), 귀국 : 8. 12(일)】
2. 연수기관 : 중국 상해사범대학
3. 연수인원 : 제한없음
4. 연수내용 : 외국인을 위한 중국어학습
5. 연수경비 : 자비부담 (1인당 기준)

구 분	경 비	비고 (1인당)
등 록 비	$20	
수 업 료	$405	6주 기준
기숙사비	$5.5	1일(2인1실) 기준
식 비	$5	1일(3식) 기준
기타경비	별도	왕복항공료 주말여행비 靑浦(1일) $35 蘇州(1일) $50 杭州(2일) $130 南京(2일) $130

6. 학점인정 : 「해외 중국어연수」3학점 (학부과정 재학생에 한함)
7. 신청자격 : 본교 학부 및 일반대학원 석 · 박사과정 재학생 (졸업예정자 제외)
8. 신청서류
   가. 해외 자매대학 어학연수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재학증명서 1부
   다. 중국 상해사범대학 입학신청서(소정양식) 1부
9. 신청서 교부 · 접수 : 5. 10(목)까지 국제교류실에서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실(본관 2층, ☎ 2260-3876)로 문의 바랍니다.

연 구 처

짧은소식

전국고교생 문학콩쿠르

본사와 문예창작학과가 공동 주최하는 '제39회 전국고교생 문학콩쿠르' 작품을 모집한다.

전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콩쿠르 응모작은 심사를 통해 선별, 오는 26일 본교에서 열릴 예정인 백일장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오는 9일까지 시·시조, 소설, 수필의 3부문에 걸쳐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dgupress.dongguk.ac.kr)에서 안내하고 있다. 문의 2260-3491, 3423

그리고…그림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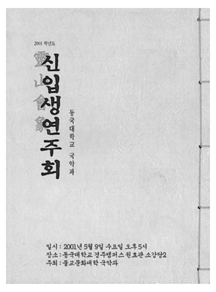
서울캠 순수미술 동아리 '그리고…그림'이 정기 전시회를 연다.

왜 그리는지,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탄탄한 기초공부를 통해 준비해온 이번 전시회는 01학번 신입생들의 작품 위주로 구성되어 보다 다양하고 참신한 시각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그리고…그림' 회원이 직접 디자인한 전시회 포스터 역시 또 하나의 작품으로 눈길을 끈다.

오늘(7일)부터 12일까지. 90주년기념 학술문화관 지하2층 갤러리 동국에서.

문의 011-9895-5359 (박원석)

국악과 연주회



경주캠 국악과가 2001학년도 '신입생 연주회'를 연다.

이번 연주회는 깨달음을 향한 일곱 번째 소리향연으로 가야금 연주에서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미가 묻어난다.

특히 '침향무'는 동양과 서양의 공통된 원시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다. 신입생들의 화합과 기량이 발휘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오는 9일 오후 5시. 원효관 소강당Ⅱ에서.

문의 054)770-2509

소낙비 영화굿

경주캠 영화모임 소낙비가 '2001 임석 대동 영화굿'을 벌인다.

오는 10, 11일 이틀간 원효관 소강당Ⅰ에서 진행될 이번 영화마당에서는 소재와 형식을 뛰어넘어 자유롭게 영화를 제작하기로 유명한 임상수, 로우예 감독의 대표작이 소개된다.

또한 고전 공포영화의 진수를 엿볼 수 있는 '엑소시스트' 원작도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54)770-2766

	10일	11일
1시	엑소시스트	눈물
3시	칼리토	수쥬

인터넷내용등급제, 어쩌라구 어?!

청소년 보호 명목 … 또 다른 권력 구조화 장치로

20대 남녀가 극약을 마시고 동반 자살을 했다.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이들은 오프 라인 상에서 다시 만나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목포에서 10대 여학생을 포함, 3명이 극약을 마시고 숨지는 등 올 들어서만 9명이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접속한 뒤 자살했다.

- 세계일보 4월 9일자 -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사람들의 자살이 처음 알려졌을 때 사람들의 놀라움은 인터넷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 내기에 충분했다. 언론은 그들의 죽음이 모두 자살 사이트의 탓인 양 떠들어댔고 정작 사람들은 '왜' 그들이 자살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지난달 26일 안국동의 한 카페에서는 최근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인터넷내용등급제' 실시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는 정부와 경찰이 불건전하다고 지정한 10만8천 개에 달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전국 PC방 내에 명시하도록 한 것과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 선포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해서이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은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이것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정부가 '통신질서확립법'을 추진하면서부터이다. 인터넷상의 국가보안법이라 불리던 통신질서확립법은 네티즌과 시민단체의 끈질긴 철폐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수정만을 거친 후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때 가장 논란을 빚었던 것이 인터넷내용등급제였으나 시민, 사회단체의 계속되는 항의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못이겨 유보 조치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실시될 통신질서확립법의 시행령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강제하는 조항을 넣어 다시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해 본교 사회학과 박찬웅 교수는 "인터넷내용등급제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국가가 셀 수 없이 많은 사이트를 검열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 발상 자체가 무모하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실제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실시하는 것은 거대한 인터넷의 바다에 국경선을 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루에도 수십 만개씩 생겨나는 사이트들을 정부가 일일이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은 일종의 신기루에 불과하다. 게다가 정부가 발표한 불건전 사이트 목록들은 마치 군부 독재 시절 불온 서적 목록을 떠올리게 한다. 사실상의 검열을 뜻하는 이같은 정부의 정책은 명목상 청소년을 보호한다고 해도 인터넷상에서 또 다른 권력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70·80년대 사회 통제와 다름 없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그런 면에서 현실의 모순을 숨기고 인터넷에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엽기, 자살, 폭탄 사이트 등에 대한 제재를 위한 최상의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견제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국가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화 '큐브'에서 미로처럼 연결된 큐브 속을 헤매는 주인공들의 대사 중 "빅 브라더 같은 건 없다"라는 말이 나온다. 조지 오웰의 소설에 등장한 이후 개인의 모든 것을 조종하고 감시하는 국가를 지칭하는 말이 되어 버린 빅 브라더는 큐브 속에선 없을지 몰라도 현 세상에는 엄연히 실재하는 존재이다. 이젠 영원한 '큰 형'으로 남으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이다.

손상민 기자
neo9292@dongguk.edu

함께 할 그날 위한 귀향의 서시

분단의 고통 … 통일 의지 담아 푸는 민족춤제전

한상근과 춤패 아홉.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정지용 시인은 그의 시 '향수'에서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한 안식처로 살아 있는 고향을 노래했다. 지금 우리 곁에도 꿈엔들 잊지 못할, 그러나 가지 못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분단의 아픔을 짊어지고 반 백년을 살아온 이산가족들이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족춤위원회는 이런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감싸안으며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제8회 민족춤제전 '분단2세기 평화천사 종횡무진'을 무대에 올린다.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는 이번 민족춤제전은 5개국 9개 단체가 분단 생이별의 고통을 4부작 옴니버스로 구성하여 공연한다.

지난 88년 12월에 출범한 민족춤위원회는 94년부터 1년에 한 번씩 민족춤제전을 열어 여성·환경·정보사회 등 현대사회의 주요현안을 춤이라는 예술의 형태를 빌어 다뤄왔다. 이번 주제인 분단2세기 역시 21세기가 시작되는 2001년, 우리가 현재 당면한 최대과제인 민족 분단의 해묵은 문제들을 신명나는 춤판으로 풀어보자는 뜻을 담아 마련한 것이다.

4일 동안 1부 생이별, 2부 상실, 3부 귀향1, 4부 귀향2 순으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통일을 향한 열망 외에 또 하나의 분단 국가였던 베트남 국립무용단과 재중·재일 동포무용단들이 공연하는 무대라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갖는다. 또한 모든 참가작이 현수교형 대형 무대장치를 공동 활용하는 양식으로 공연돼 춤의 신기원을 연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의의이다.

공연을 기획한 김채현 대표는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 모두의 상처"라며 "춤으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분단 극복 의지를 널리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통일을 그리는 것은 무대 위뿐만 아니다. 지난달에 '통일'이라는 우리말 이름을 가진 소행성이 최초로 탄생한 것이다. 소행성 발견자인 이태행(37)씨는 우리 민족의 소망을 담아 국제천문연맹(IAU)에 '통일'이라는 이름을 제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남측의 통일 열망과 달리 북측은 지난 3월 13일 열릴 예정이던 제5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고 지난달 23일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으로 참가키로 한 남북합의를 파기하는 등 남북의 교류를 소강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우리 민족은 긴 시간을 아픔과 상처 속에서 살아왔다. 그 세월 동안 분단의 상처는 아물기는커녕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사실마저 잊게 할 정도로 벌어져 버렸다. 이제는 남과 북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꿈에도 소원'인 통일을 이루어 '꿈에도 잊지 못할' 고향에 가야 하지 않을까.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달하나 천강에

야누스의 얼굴

주 재 훈
상경대
정보산업학과 교수

1876년 전화기를 발명하여 특허를 등록한 그래햄 벨이 오늘날 전화의 역할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전화는 주로 송신자측에 주도권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용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수신자는 장난전화와 폭력전화로 시달림을 받게 되고, 이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 전화시스템에 도입되고 있다. 바로 국내에서 올 4월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발신자 번호표시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전화폭력 및 장난전화 예방효과가 있고, 부재중 전화의 발신자 확인이 가능하며, 편리성과 사생활 보호 혜택까지 제공한다. 바야흐로 송신자 주도 시대에서 수신자 보호 시대로 변모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식 교환기와 반전자교환기가 35%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발신자 번호표시 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우려와 요금 인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송신자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자장면 한 그릇을 배달주문 할 때에도 프라이버시 침해를 고민해야 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또한 오늘날 고객 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회원등록정보와 쿠키(cookies)를 이용한 홈페이지 방문 정보가 악용되어 소비자의 사생활 침해를 일으킬지도 모른다. 이와 더불어 화상전화 서비스,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추적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수신자인 동시에 송신자이기도 한 우리는 감시 받는 사회에서 생활하게 된다. 결국 새로운 기술을 선택한 우리는 그 혜택과 편리함을 누리는 한편 감시능력이 보다 강화된 사회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과 혁신은 항상 야누스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잠재 영향으로 인해 사회의 운명이 좌우되지는 않는다. 다양한 문화와 규범이 자리잡고 있는 사회에서 기술의 전파 과정은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며, 뜻하지 않는 요소가 영향을 주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새로운 혁신과 기술이 사회에 정립되면 이를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어 버린다. 현재 통신서비스업체는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신자는 원하지 않는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누리고 있다. 이처럼 현대인은 주고받음의 틀 바구니 속에서 로빈슨 크루소의 생활보다는 편리함을 선택해 가고 있다.

매체비평

광고 편

빨간통 패니아

"여성과 남성 가르기보다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떳떳한 사회의 구성원임이 중요"

성전환한 모델이 등장해 화제를 모은 '빨간통 패니아' 광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카피를 내건 도도화장품의 '빨간통 패니아' 광고는 독특한 진실을 카피로 위장한 채 전파를 탔다. 높은 의자에 앉아 가녀린 손으로 입을 살짝 가리고 웃는 모양새나 살짝 꼬아 포갠 다리, 하이 옥타브의 웃음소리를 내는 모델. 분명 여성의 그것이었다.

그러나 처음 그녀의 여성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드러내는 여성성보다는 숨겨져 있는 남성성을 찾으려 혈안이 되었다. 바로 빨간통 패니아의 모델 하리수가 성전환 여성이라는 사실이 공개되면서였다.

물론 광고주도 이러한 결과를 예측했을 것이다.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는 하리수가 더욱 군침도는 모델이었을 게다.

성전환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도 하리수가 화장품 모델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우니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도도화장품은 광고 카피를 통해 하리수의 성전환 사실을 의도적으로 밝히려 했다. 성전환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진짜 여성보다 더 아름다운 그녀의 외모가 빨간통 패니아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암시를 줄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이들의 전략은 광고 속 제품을 드러내기 보다는 성전환 여성 '하리수'만을 부각시키고 말았다. 아마 언론의 폭로로 인해 커밍아웃한 홍석천과 달리 당당하게 자기의 비주류적 성정체성을 드러낸 사람이라는 사실이 가장 큰 이유였으리라. 그리고 그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녀의 성전환에 초점이 맞춰진 '호기심'이 더 강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리수는 신체적인 성과 자기가 생각하는 성이 심한 부조화를 이루는 '성전환증'을 느끼는 '성전환자'로 주류의 세계에 거리낌없이 등장했다. 우리 사회 주류의 사람들과는 다른 성정체성을 느끼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혐오와 천대의 대상으로 왜곡된 대접을 받아온 이들 속의 하리수가 주류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뒷통수를 강타한 것이다. 그것도 여성을 상징하는 대표격인 화장품 광고를 통해서 아주 당당하게.

그렇기 때문에 빨간통 패니아 광고는 더욱 의미깊다. "흉악범이나 파렴치범도 아닌데 그보다 더한 대접을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고 싶다"고 한 스포츠 신문에서 밝힌 그녀의 말처럼 왜곡된 생각이 진실이라 믿고 있는 주류들에게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의 시작고리를 제공한 것이다.

물론 국내 TV 프로그램에서 동성애 관련 방송을 다루거나 해태음료의 '티(Tea)'처럼 동성애를 암시하는 광고가 종종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이들을 이해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웃음의 소재나 호기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다.

이제 이러한 사회에 반기를 들 수 있는 길을 빨간통 패니아 광고가 열었다. 상업적 목적으로 하리수를 기용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주류 성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떳떳이 고개 들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 하리수가 서 있다.

아직은 광고의 성과나 그녀의 힘은 미약할 지 모르나 주류의 왜곡에 맞서는 당당함에 박수를 보낸다.

표은영 문화부장
pisik20@dongguk.edu

우물 안 캐릭터, 세계향해 점프!

개성넘치는 아이디어 · 전략으로 해외진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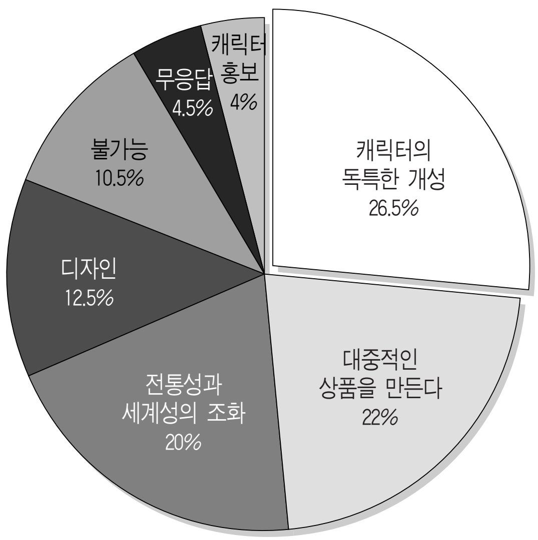
편집자

그동안 국내 캐릭터 시장은 해외 캐릭터가 거의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키티', '푸우', '미키마우스'에서 최근 '부르부르 도그'와 '타래팬더'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과 종류도 다양하다.

그러나 최근 '마시마로(엽기토끼)'를 필두로 한 '졸라맨', '빨강머리 앤', '우비소년' 등 국내 창작 캐릭터의 선전이 돋보이고 있다. 그간 '태권V'와 '둘리'가 외로이 지켜오던 국내 캐릭터 시장에 단비를 내리고 있는 국내 창작 캐릭터.

이들 무리는 플래시 애니메이션의 형태로 인터넷 상에서 먼저 소개된 후 그 인지도를 통해 차츰 인기를 얻는 형태로 네티즌으로 대변되는 젊은 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캐릭터의 인기를 힘입어 각종 캐릭터 상품으로 출시, 해외 캐릭터들이 장악한 시장 흐름을 국내 캐릭터 판도로 바꿔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적 분위기에 따라 본사 문화부는 지난 2, 3일 양일에 걸쳐 본교 학생 200명(서울캠 130명, 경주캠 70명)을 대상으로 캐릭터 선호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가장 선호하는 캐릭터와 캐릭터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국내 캐릭터 산업의 장·단점과 우리 전통 캐릭터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본다.



우리 전통 캐릭터의 경쟁력 확보위해 고려할 사항

본교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최근 인기 급상승중인 '마시마로(엽기토끼)'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 중 72명(36%)이 좋아한다고 대답한 마시마로는 김재인씨가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것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네티즌에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2위 캐릭터는 '푸우'로 전체학생의 21명(10.5%)이 응답했다. 그러나 1위인 마시마로와 달리 2위부터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캐릭터 선호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남학생의 경우 100명중 16명이 '졸라맨'을 선택했으며 여학생의 경우 100명 중 12명이 '푸우'를 좋아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캐릭터 선호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적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졸라맨 20명(10%), 키티 16명(8%), 부르부르 도그 11명(5.5%) 순으로 캐릭터 선호도가 조사됐다.

한편 위에서 선택한 캐릭터를 좋아하는 이유는 개인의 취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학생의 88명(44%)이 '내 취향에 맞아서'라고 대답한 것이다. 그러나 '귀여워서'라고 응답한 학생 역시 전체 61명(30.5%)으로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는 캐릭터의 선택에 있어 전체 학생의 94명(47%)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캐릭터 자체의 독특한 특징이나 개성'을 꼽은 것과 관련해 볼 때, 개인의 취향에 따라 캐릭터 자체에서도 개성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최근 플래시 애니메이션의 발달과 함께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창작 캐릭터를 상품화할 경우 구입여부를 묻는 문항에 전체 학생의 151명(75.5%)이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마시마로의 영향력과 더불어 최근 국내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선보이는 캐릭터들의 개성이나 특징이 뚜렷해 새롭고 독특한 것을 추구하는 신세대들의 입맛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동반한 것으로 보인다.

시대는 점점 개인의 취향이나 개성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내 캐릭터 산업의 향방도 얼마나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상품을 생산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전통+개성+창의=해외경쟁력

신라시대의 '토용'들은 한결같이 웃고 있는 모습이다. 또 태극무늬 얼굴모양을 하고 있는 '새천년의 미소'는 우리 역사와 함께 천년을 이어 내려 왔다. 바로 우리 민족의 절제된 웃음을 형상화하고 있는 문화적 산물이다.

하지만 한국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전통 캐릭터들은 외국의 그것과 겨룰 힘이 부족한 상태다. 이것은 우리 나라 고유 역사와 정서를 부각시킨 캐릭터가 세계 시장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본교 학생들 역시 우리 전통 캐릭터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통 캐릭터의 해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전통성과 국제성의 조화'를 이루는 캐릭터 개발이 시급함을 손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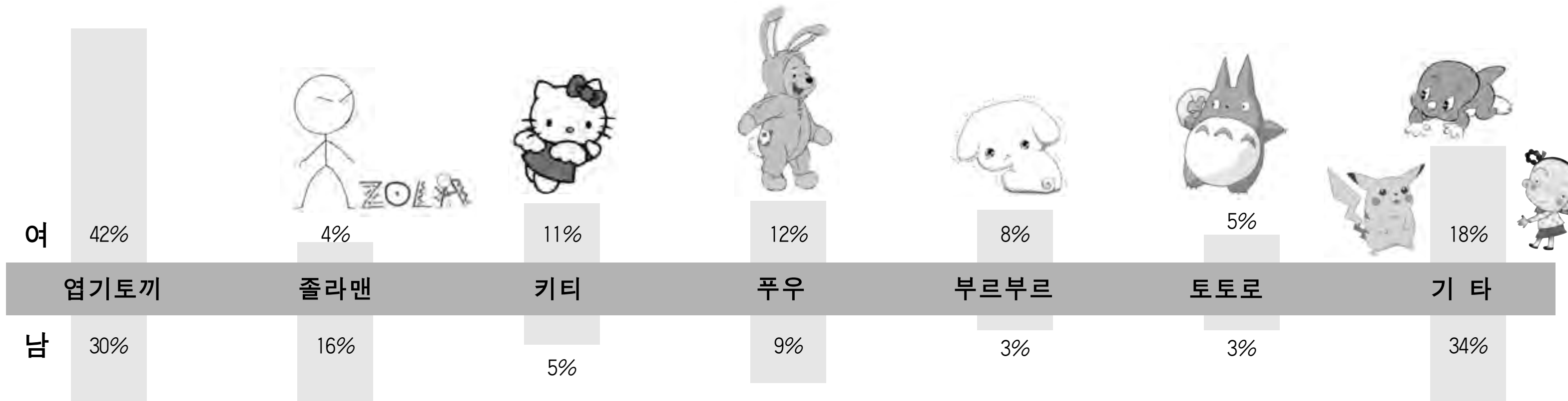
그간 이러한 시도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안동 '하회탈'은 우리 민족의 희노애락이 묻어나는 가장 한국적인 얼굴로서 얼굴 전체는 부드러운 곡선 주름으로 가득하고, 표정에는 생동감과 여유가 넘쳐난다. 하회탈은 그 자체가 훌륭한 조각 미술품인 동시에 살아있는 한국인의 모습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잔잔하면서 편안한 인상을 통해 세계 속의 우리 캐릭터로 자리잡기에 손색이 없다. 또한 옛날 이야기 속에서 자주 등장했던 호랑이는 88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로 세계 속에 한국을 나타내는 상징 캐릭터로 활약하기도 했다. 그리고 금동대향로와 나비의 이미지를 결합한 왕관모양의 '백제넷'이나 예로부터 신성시 여겨졌던 십장생과 장승도 우리 전통을 살린 캐릭터로 재구성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전통 캐릭터산업은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독특한 개성과 특성을 겸비한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캐릭터 산업은 환경과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통 캐릭터에도 작은 희망을 걸 수 있다. 우선 새로운 캐릭터가 속속 등장하면서 외국 캐릭터에 뒤쳐지지 않는 캐릭터가 창조되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개성없고, 해외 캐릭터 모방에 급급하던 국내 캐릭터 시장의 병폐를 벗어난 반가운 시도라 할 수 있다. 본교 학생들 역시 '창의적인 캐릭터의 등장'이 전통 캐릭터의 해외 경쟁력을 가능케 하는 주된 이유로 꼽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충기(관광경영학) 교수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수단으로 캐릭터가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나라 전통 캐릭터의 특징에 현대적 감각을 접목시킨다면 세계시장을 주목시킬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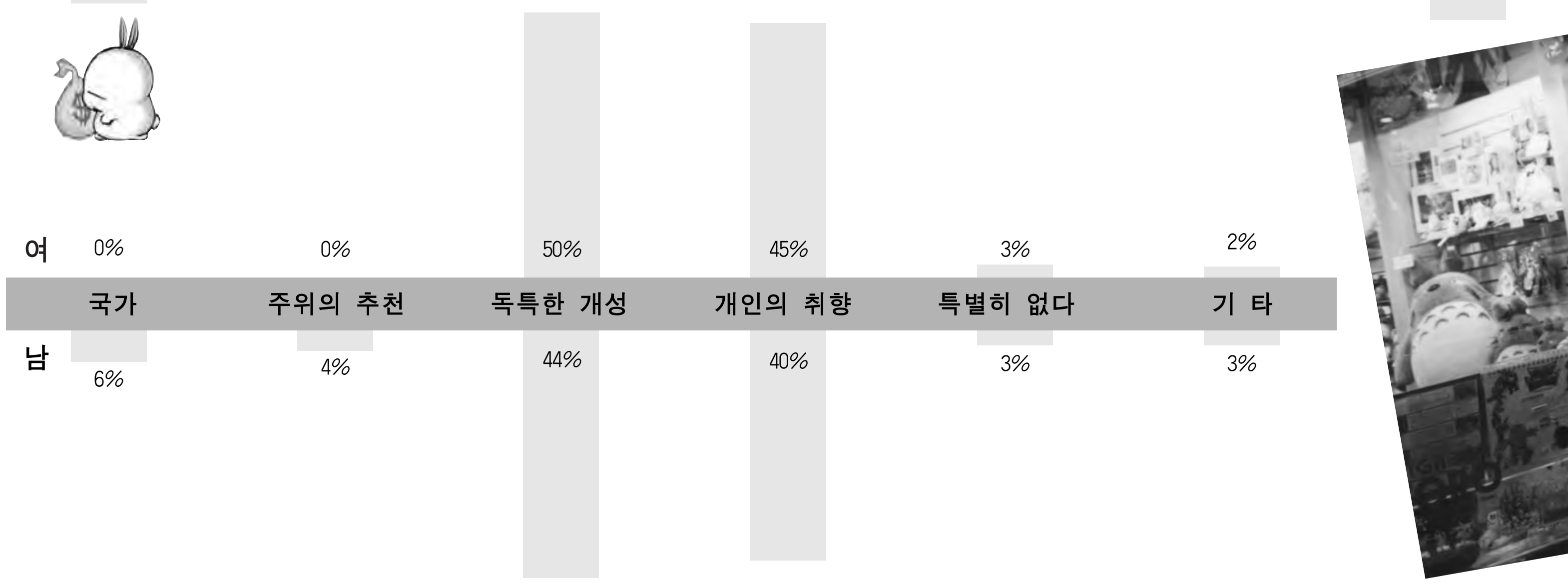
캐릭터 산업은 무한한 잠재력이 숨어 있다. '굴뚝없는 산업'이라는 관광산업처럼 캐릭터 산업 역시 그 속에 끊임없는 개발가능성과 경제성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족적 특징과 정서를 담은 전통 캐릭터 개발은 우리 나라를 알림과 동시에 우리 5천년 역사를 증명하고 세계 속 한국의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문화부
fresh@dongguk.edu



	엽기토끼	졸라맨	키티	푸우	부르부르	토토로	기 타
여	42%	4%	11%	12%	8%	5%	18%
남	30%	16%	5%	9%	3%	3%	34%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국가	주위의 추천	독특한 개성	개인의 취향	특별히 없다	기 타
여	0%	0%	50%	45%	3%	2%
남	6%	4%	44%	40%	3%	3%

캐릭터 상품 선택시 우선 고려하는 것

젊음의 거리면 어디에서나 세계 각국 캐릭터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캐릭터 숍을 만날 수 있다.

메아리

관객 = 시다바리

▲부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거친 남자들의 진득한 우정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소독차가 내뿜는 안개 속을 좋아라 쫓아 달리던 아이들은 어느새 검정 교복을 껄렁하게 차려입고 골목길을 질주한다.

걸쭉한 부산 사투리가 힘을 더하는 영화 '친구'는 바다 위에 흩어져 있는 아련한 '추억'의 섬으로 관객을 끌어들인다. 그러나 향수가 묻어나는 것도 잠시, 친구에게는 '니는 니처럼 살고, 나는 내처럼 살아야' 하는 '어둠의 법칙'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달 25일 열린 제38회 대종상영화제 시상식은 신·구 갈등을 겪어왔던 한국영화인협회와 영화인회의가 일시적으로 화합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그동안 티격태격해온 두 세력의 기분 좋은 만남은 한국영화계에 더 깊은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이다. 이미 한편의 장편영화를 연출했던 임상수 감독이 신인감독상을 수상하면서부터 시작된 해프닝은 영화 '하루'가 여우주연·조연상, 감독상, 심사위원특별상을 휩쓰는 '이변'을 토해내자 질타와 비난으로 뒤바뀌고 말았다.

▲역시 대종상이다.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도입한 단심제는 허울좋은 껍데기에 불과했다. 일찌감치 '친구'는 연로하신 심사위원 나리들께 상투성과 폭력성이 짙은 영화로 낙인찍혀 버렸다. 더욱이 두 세력간의 보이지 않는 힘 대결은 미흡한 영화제 규정과 더불어 대종상 심사에 숨겨져 있던 비리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순진한 관객들은 대종상 심사위원들의 편싸움에 휘둘린 셈이다.

▲흔히 개봉작을 내놓은 영화관계자들은 '관객들의 평가를 기다린다'며 겸손을 떤다. 그러나 정작 대종상 시상식에서 나타난 것은 관객을 무시해버린 결과였다. 대종상은 관객을 떠나 너무 멀리 와버렸다. 다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친구'와 '관객'은 대종상의 '시다바리'가 되어버린 현실에 분노를 터뜨린다. 그리고 '대종아! 이제 니는 니대로 주라, 내는 내대로 흥행하꾸마(?)'라고 대종상을 향해 어둠의 법칙을 되갚아 준다.

이제 대종상영화제는 변화해야 한다. 부디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관객의 눈과 귀를 외면하지 말아라!

김지혜 문화부장
wisdom@mail.dongguk.ac.kr

책소식

동남아시아의 불교 수용과 전개

이시이 요네요 교수 외 7명의 필자들이 동남아시아 현지 생활과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을 본교 박경준 교수가 번역한 책.

약 1억인의 신도를 확보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현대 불교를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동남아시아 사람들 마음 속에 살아있는 생생한 불교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이시이 요네오 저/ 박경준 역/ 불교시대사/ 정가 7천원.

T.S.엘리엇 인간과 문학

20세기 시 해설에 새로운 지평을 연 시인 엘리엇의 생애와 작품을 본교 이창배 명예교수가 연구해 묶었다.

시인의 전기적 사실을 바탕으로 시와 극에서 중요한 부분을 인용해 엘리엇 시의 주제와 기교, 그의 사상까지 저자 특유의 시각으로 파고든다.

이창배 저/ 동국대학교 출판부/ 정가 2만원.

지장경 강의

강인한 원력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힘찬 삶을 살아가라는 지장보살의 메시지를 담은 지장경을 강론 형식으로 풀어놓았다.

중생을 교화하는 부처님의 방편법문 가운데 하나인 지장경은 지혜의 눈을 뜨고 삶의 온갖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수차례 강의한 필자의 경험을 통해 지장경 원문과 해석을 생동감 넘치게 엮었다.

무비 스님 저/ 불광출판부/ 정가 9천5백원.

1968 희망의 시절, 분노의 나날

모든 대륙과 주요 도시의 거리에서 반란이 있었던 1968년을 1월부터 12월까지 세분화해 당시의 사건들로 안내한다.

반란을 통해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1968년의 희망을 보고, 그러한 반란자들을 거리로 내몬 현실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음을 실제 관련사진과 더불어 느끼게 한다.

타리크 알리·수잔 왓킨스 저/ 안찬수·강정석 역/ 삼인/ 정가 1만3천원.

비바람 속에 피어난 꽃

1980년 1월 초판 발행 시 계엄정부에 의해 판매 금지되었던 책을 20여 년이 지나 재발간해 더욱 뜻깊다.

하루 20시간 일하면서도 부모와 이웃 앞에서는 구김이 없었던 10대 노동자들의 고달픔을 일기와 생활고백 형식으로 엮어 가식없이 표현한다.

한윤수 편/ 책소리/ 정가 7천8백원.

님은 님이지만

불교적 소재들을 이용해 참된 나를 찾는 길과 재생을 위한 소멸, 타락해 가는 종교상을 시로 그려낸다.

찬불가 '석가여래 오시었네' 찬불동요 '연등불' 등을 작시해온 저자의 색이 시집을 통해 그대로 묻어난다.

진진욱 저/ 대한/ 정가 6천원.

지혜와 성공의 투자학

물리학, 사회과학, 심리학 속에서 투자와 시장의 논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투자와 아무 관련없어 보이는 기본 진리로부터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지식과 원리를 살펴볼 수 있다.

로버트 해그스트롬 저/ 석기용 역/ 이끌리오 / 정가 1만2천원.

백두산

8·15해방을 기점으로 시작하는 비망록 형태의 장편대하소설.

자연의 섭리를 인류사회에 구현시킬 수 있는 이념은 '홍익인간' 뿐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며, 해방이후 남북모습과 그 관계에 대해 풀어나간다. 전 12권 중 1차로 3권이 먼저 간행되었다.

고광보 저/ 학명당/ 정가 각 9천원.

콘서트소식

천지인

락으로 사랑과 혁명을 노래하는 '천지인'이 3집 앨범 '외눈박이' 출반을 기념해 콘서트를 연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우리 스스로 만든 타성의 벽을 허물고 원하는 것을 향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은 '천지인'의 3집 수록곡 전부를 들을 수 있다.

7시30분(11일)/6시30분(12일)/3시30분·6시30분(13일). 홍대 앞 쌈지 스페이스 바람에서. 문의 338-5424

공연소식

환생구역

극단 반딧불이가 천사들과 인간의 이야기를 담은 '환생구역'을 공연한다.

술 마시고, 화내고, 질투하는 인간적인 천사와 천국에 가기 위해 좌충우돌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 따뜻한 휴머니즘을 보여준다.

오는 10일부터 6월10일까지. 7시30분(화-목)/4시30분·7시30분(금·토)/3시·6시(일·공휴일)/월 쉼.

대학로 소극장 아리랑에서. 문의 764-8760

지하철 1호선

극단 학전이 락뮤지컬 '지하철 1호선'을 무대에 올린다.

사랑을 찾아 서울에 온 연변처녀의 눈으로 바라보는 서울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현재 한국사회의 모습을 풍자와 해학으로 표현한다.

공연 내내 영어·독일어 자막을 제공, 외국인 관람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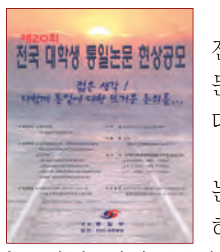
6월17일까지. 7시30분(화-금)/4시·7시30분(토)/3시·7시(일·공휴일)/월 쉼.

대학로 학전그린 소극장에서.

문의 763-8233

행사소식

전국 대학생 통일논문 공모



통일부가 '제20회 전국 대학생 통일논문' 작품을 모집한다.

대학생들의 통일논의를 장려하기 위해 시작된 이 행사는 남북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시대에 부합하는 내용의 통일·북한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우편응모만 가능하며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지원과에서 접수한다.

문의 901-7021

트레시 모펫 사진전

경주 선재미술관이 호주 여성사진작가 트레시모펫의 개인전을 통해 관객을 만난다.

성, 계급, 인종과 식민지 등 각자 반목하는 주제가 작가의 파인더 안에서 격렬한 긴장감을 띤 채 사실적으로 다가온다.

작가의 초기작부터 최근 사진과 비디오 작업이 모두 소개되는 이번 사진전은 트레시 모펫의 작품세계를 한눈에 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오는 7월 1일까지. 경주 아트선재미술관에서.

문의 (054) 740-1922

경주 문화기행

신라문화원이 경주 각지에 숨어있는 유적·유물을 소개하고 옛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남산 답사를 마련한다.

답사지는 불교문화의 흔적이 짙게 배어있는 삼불사 코스로 삼불사를 출발, 상선암을 경유하여 용장사터로 내려오게 된다. 자연속의 문화유산과 함께 할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오는 13일 오전 9시. 신라문화원 앞에서.

문의 (054) 774-1950

서울캠 교육봉사 동아리-'젊은새이웃'

사랑과 나눔의 손길을 그대에게

교육봉사, 하나되어 어우러지는 배움과 가르침의 한마당

사진/엄태규 기자

이름만큼 젊고 푸른 '젊은새이웃' 회원들.

'젊음'과 함께 사는 '이웃'의 정신이 만났다. 배움에 열의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 바로 학생회관 옥외 지하 1층에 위치한 교육봉사 동아리 '젊은새이웃'이 그들이다.

'공동하는 사회, 협동하는 사회, 책임을 다하는 사회, 위대한 사회, 우리는 이러한 사회 안에서 살기를 힘쓴다'는 신조로 지난 73년 만들어진 젊은새이웃은 지역사회 교육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한 학기에 한 번씩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 임원단이 동아리의 전반적인 활동을 꾸려나가는 젊은새이웃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학생이라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젊은새이웃은 발족한 이래 지금까지 보육원 봉사활동과 농민학생연대활동, 청소년 야학 등 다방면에 걸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그리고 요즘에는 매주 월요일 구로구 천왕동에 위치한 연세사회복지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경제형편이나 부모님의 사정 등으로 연세사회복지관에 맡겨진 아동들은 젊은새이웃 회원들과 함께 교과 수업, 놀이 등을 통해 하나로 어우러져 마음을 나누는 1:1학습 시간을 갖는다.

젊은새이웃 강정인(멀티미디어공학2) 회장은 "아이들에게는 배움의 손길만큼이나 애정도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올 때가 가장 뿌듯하다"고 말한다.

이처럼 교육봉사뿐 아니라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는 젊은새이웃은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열린사회시민연합이 주최한 '한마음 어린이 한마당'에 참여해 원활한 행사진행을 돕는 등 레크레이션 활동도 했다.

흔히들 요즘을 각박한 세상이라고 한다. 사실 도움이 필요한 곳은 산재해 있는 반면 도움의 손길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는 옛말처럼,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젊은새이웃같은 작은 손길들이 늘어날수록 세상은 좀더 따뜻한 곳이 될 것이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경주캠 – 멀티미디어실로 와봐!

본사사진자료

경주캠 도서관 1층에 자리잡고 있는 멀티미디어실은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모든 작업과 전자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꾸며진 공간이다.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곳은 학생증 제시 후 자리를 배정 받고 사용하게 되며 형평성을 고려해 2시간으로 시간제한을 두고있다.

주요 시설은 크게 △위성방송/비디오 코너 △멀티미디어 PC 코너 △오디오코너 △마이크로 자료 코너△멀티미디어 제작 코너 등 5개로 나눠져 있다. 이밖에도 스케너, CD-Rewriter, 일한 번역기, 각종 자료 등이 학생들의 편의를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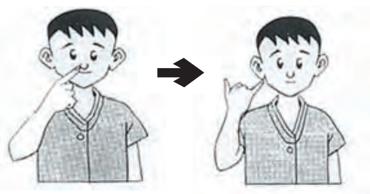
모든 자료는 실내열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수업교재나 교내 행사에 활용할 경우 '실외대출 신청서'를 작성 후 대출할 수 있다. 비디오카메라, LCD 프로젝터 등의 기자재 역시 기자재 대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여 가능하다.

이곳의 모든 시설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나 프린트는 흑백 50원/칼라 2백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멀티미디어실 이용 도중 어려움은 상주하고 있는 조교에게 문의하고, 위성방송이나 자료목록을 비롯해 구체적인 이용현황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ediacenter.dongguk.ac.kr/)를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손짓으로 나누는 사랑 Ⅳ

"부모님 사랑해요!"



부모님

오른손 검지로 오른쪽 코 옆을 댔다 떼었다 검지를 접고 엄지와 약지를 펼친다.

사랑해요

주먹쥐어 세운 왼손 위에 오른손을 펴서 시계방향으로 돌린다.

〈제공:손짓사랑회〉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잔치국수(무료배식)
화	개교기념일
수	수제비백반(1500)
	치킨까스(1500) 해물볶음밥(1500)
목	만두육개장(1500)
	후라이드치킨(1500) 열무비빔밥(1500)
금	돈육찌개(1300)
	오징어소면무침(1500) 제육김치볶음(1500)

(단위:원)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잔치국수(무료배식) 불고기덮밥(2500)
화	개교기념일
수	햄섞어찌개(1500) 순두부찌개(3000)
	만두탕수(1300) 갈비찜백반(3500)
목	불고기백반(1500) 만두전골(3300)
	오징어볶음밥(1500) 참치회덮밥(3300)
금	닭개장(1500) 소라들깨찌개(3300)
	제육덮밥(1500) 함박스테이크(3500)

(단위:원)

독 자 광 고

독자광고는 함께 일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하숙집 구함, 야학교사 모집, 각 동아리·학생회 소모임 등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등 분야에 제한없이 순수한 독자들의 광고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젊음과 패기로 도전하세요

〈서울캠 제12회 백상농구대회〉

접수기간 : 오는 9일까지 학생회관 1층에서
대회기간 :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대회장소 : 만해광장
대회방식 : 예선-3개팀 한조 리그전
본선-토너먼트

※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함.

사이코드라마란 자신이 가진 문제를 자발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일종의 즉흥극으로 심리 치료 및 상담의 한 방법을 말합니다.

오는 10일(목) 오후 3시~6시.

경주캠 원효관 소강당Ⅱ에서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 심리극이 펼쳐집니다.

시간이 있는 학생들은 모두 참여해서 자신 안의 문제를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 참가문의는 원효관 2층 학생상담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서울캠 수화 동아리 '손짓사랑회' 입니다.

손짓사랑회가 여러분과 함께 시각·지체 장애인분들에 대해 알아가고 함께 이야기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랑동이뿐만 아니라 동악에 계신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수화는 자연적으로 배울 수 있구요. 함께 나누는 사랑이 배가 되는 시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8일) 오전 9시30분까지 회비 1만원을 들고 사랑방으로 오세요!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시금치국(1300) 김치볶음덮밥(1600)
	쇠고기볶음밥(1700) 스페니쉬폭찹(2000)
화	된장찌개(1300)
	미트볼덮밥(1600) 장터국밥(1300)
수	배추국(1300) 열무김치비빔밥(1500)
	삼색볶음밥(1600) 불고기덮밥(1700)
목	미역국(1300) 참치야채비빔밥(1500)
	짜장덮밥(1700) 물냉면(1800)
금	호박감자된장국(1300) 카레라이스(1500)
	닭갈비볶음밥(1700) 잡탕밥(2000)
토	산채국(1300)
	양송이볶음밥(1600) 육개장(1300)
일	김치두부국(1300)
	김치볶음밥(1600) 육개장(1300)

(단위:원)

함께 일 할 사람을 찾습니다

저는 경주캠 고고미술사학과의 최제휴라고 합니다. 매일 저녁 8시~9시. 저와 함께 일 할 남학생 한 분을 찾습니다. 아르바이트비는 시간당 3천~5천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둘째주까지 연락 주십시오.

문의 019-588-5071